

국민 탄생의 역사와 안중근

이 태 진*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광무제 고종의 주권 이양 선언 |
| 2. 고종 시대 국민 탄생의 역사 | 4. 「안응칠 역사」와 안중근의 국민의식 |
| 1) 1896년 국한문 혼용체 조서(詔書)의 등장 | 1) 1970년대 「안응칠 역사」 출현 상황과 판본 관계 |
| 2) 관민 협력 독립협회 발족과 한글 『독립신문』 | 2) 「안응칠 역사」에 보이는 국민 의식 |
| 3) 국채보상운동의 국민의무 의식 | 5. 광무제(고종)에게 남긴 유묵 3점의 국가 의식 |
| 4) 사회단체 잡지의 국민·국가 관련 논설 범람 | 6. 맺음말 |

〈국문요약〉

안중근은 옥중에서 쓴 유묵에 쓴 시기와 장소 및 쓴 사람을 밝혔다. 즉 “경자년 (1910) 2월 (또는 3월) 뤼순 옥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문구를 모든 유묵에 다 써서 남겼다. 이는 한국 서예 역사에서 유일한 예인데도 이를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대한국인’이란 국적 표시가 그의 치열한 애국심의 발로로 간주하는 데 그쳤다. 안중근은 1879년생이다. 그가 15, 6세 되던 1894, 5년에 조선은 청일전쟁을 겪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적인 국민 창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895년 2월 2일에 내려진 「교육조령」은 덕양, 체양, 지양의 3양(養) 교육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군주는 오직 신민(臣民)만이 나라의 분개를 풀어주고, 나라의 모욕을 막고, 국가의 정치제도를 닦아나갈 사람이라고 하여

신민의 교육 기회 마련은 곧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근대적 국민 창출을 위한 조정의 모든 조치는 국한문 혼용체로 조서(詔書)를 작성하는 특징을 보였고, 1896년에 정부 지원으로 순 한글 『독립신문』이 창간된 것도 그 연장 선상에 있었다. 안중근의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는 이런 시대 조류가 그대로 나타나 있을뿐더러 그는 군주 고종이 추진한 국민 창출 역사의 최우등생으로 평가해도 좋을 만큼 투철한 국민 의식 및 국민의무 의식을 가졌다. 그는 진남포에서 교육운동에 종사하였고, 1907년 국민의무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 때 평양지역 책임자였다. 광무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자 블라디보스토크에 본부를 둔 대한의군에 투신하여 국권 탈취의 원흉 이토 히

*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사

로부미를 처단하는 의거에 앞장선 것은 이런 투 (光武帝)고종에게 하직의 뜻을 담은 유묵 3점을
철한 국민의식의 발로였다. 그는 옥중에서 쓴 유 남기기도 하였다.

목 50여 점 가운데 대한제국 국가 원수 광무제

핵심어 : 덕·체·지 3양(養) 교육 강령, 1895년(을미) 자주 개혁, 안중근의 교육운동, 「안
응칠 역사」 나가사키(長崎) 본, 시치조 기요미(七條清美) 문서 본, 다가와 고조(田川孝
三) 복명서(復命書)

1. 머리말

안중근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의사(義士)라는 호칭이 부여되고 있다. 그
래서 안중근 의사로 널리 불리고 있다. 그는 의거 당시 대한의군(大韓義君)의 참모 중장
(또는 우장군 右將軍) 신분이었으며, 뒤순 법정에서는 스스로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고 밝
혔다.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서도 의군의 참모 중장이라고 썼다. 필자는 2008~09년 의거
100주년을 앞두고 장군이라는 호칭을 쓰자고 제안하였다. ‘의사’라는 호칭이 틀린 것은 아
니지만 그가 대한의군이란 항일 조직의 고위 지휘관이었던 것이 밝혀진 이상 이를 지위 표
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였다.¹⁾

대한의군은 1907년 7월 광무제 고종이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하면서 간도 관리
사 이범윤과 최재형에게 비밀리에 보낸 군자금으로 조직된 국가 군사조직인 만큼 이를 드
러내는 것이 옳다. 사실 ‘의사’라고만 하면 이토 히로부미 처단이란 안중근의 지대한 공적
이 한 개인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이토 히로부미 처단이 당시 대한제국 황제의 뜻
으로 조직된 군사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의거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적어도 일
본 측에서 아직도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악평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
라도 의사 대신 장군으로 또는 두 가지 호칭을 병용하는 방안을 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²⁾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무렵 대한의군 특파대대장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처
단에 성공한 뒤, 하얼빈 주재 러시아 헌병대에 수감 되었다가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1) 『조선일보』 2010년 3월 25일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중근 의사인가, 장군인가〉 : 이태진,
「안중근 ‘의사’, 과연 바른 호칭인가?」 『대한민국학술원 통신』 제185호, 2008. 12. 7~9쪽.

2) 2010년 3월 25일 순국 100주년을 맞아 육군본부(당시 한민군 참모총장)는 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계룡대 본부 건물의 작전회의실 중 하나를 ‘안중근 장군실’로 명명하였다.

그날 밤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으로 신병이 넘겨졌다. 제3일 쯤 되는 날 뤼순(旅順) 법원으로 이송되어 법원 산하 감옥에 수감 된 뒤 ‘법정 투쟁’을 벌였다.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회 공판이 열린 뒤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3월 26일에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옥중에서 50여 점의 유묵을 남겼다. 유묵은 매우 정형화되어있다. 즉 쓰고자 하는 문구를 가운데 쓰고, 왼쪽 가장자리에 언제, 어디서, 누가 썼다는 표시를 하나같이 같은 형식으로 옥필로 적었다. 즉 “경술(庚戌, 1910년-필자) 2월(또는 3월) 뤼순 옥중에서[於旅順獄中]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安重根) 쓰다[書]”라고 적었다. 어느 유묵이든 인쇄하듯이 다 적어넣었다. 여기서 자신을 ‘대한국인’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이를테면 이것은 국적 표시에 해당하는 것인데 안중근이 과연 어떤 뜻으로 이 단어를 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적 표시 즉 “나는 대한국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한국 서예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원 표시이다. 이것이 과연 안중근의 근대적인 ‘국민의식’의 발로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고종 시대 국민 탄생의 역사

1) 1896년 국한문 혼용체 조서(詔書)의 등장

필자는 최근 「국민 탄생의 역사-3·1독립만세운동의 배경-」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³⁾ 이 논문에서 국민 탄생의 일차적인 근거로 1895년 초부터 6개월간 국왕이 내린 국한문 혼용체 교서 또는 조서를 주목하였다. 군주 고종은 1895년 1월 7일(음력 1894년 12월 12일) 종묘에 가서 「홍범 14조」를 고하였고⁴⁾, 이어서 그 취지와 실행 방안을 알리는 국한문 혼용체 교서를 잇달아 내렸다. 홍범(洪範) 곧 왕정의 새로운 큰 원칙 14가지는 새 개혁의 지표였

3) 이태진·사사가와 노리카스 공편, 『3·1독립만세운동과 식민지배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일 공동연구, 지식산업사, 2019.

4) 『고종실록』에서 양력은 1896년 1월 1일(음력 1895년 11월 17일)부터 건양(建陽)이란 연호를 쓰면서 시작된다. 「홍범 14조」는 그 이전인 음력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에 올려졌다. 그런데도 여기서 양력을 앞세우는 것은 ‘갑오경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치 작업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제국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개혁을 강요한 것은 내정간섭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자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군주 고종도 거부하거나 매우 소극적이었다. 군주가 스스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위 「홍범 14조」 이후로서 연도로는 ‘1895년 개혁’, 간지로 쓴다면 ‘을미개혁’이 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가지고자 한다.

다. 「홍범 14조」 자체는 국한문 혼용체가 아니나 종묘 서고(誓告) 후에 이를 알리거나 이에 근거한 주요 개혁사항의 조서, 칙유(勅諭) 등은 국한문 혼용체로 반포되었다.⁵⁾ 1894년 10월 새로 부임한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11월 20일에 조선 내정개혁 요구 사항 20개 조를 고종에게 제시하였다. 이것이 「홍범 14조」 작성의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⁶⁾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취한 것은 아니다. <표 1>에서 보듯이 양자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절반 정도이다. 필자는 「홍범 14조」는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공사 측의 일방적 요구의 산물이 아니라 조선 군주가 이를 절충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⁷⁾

「홍범 14조」를 종묘에 올린 다음 날 1895년 1월 8일에 그 취지와 내용을 「모든 관리와 백성들」에게 알리는 윤음(綸音)이 내려졌다. 윤음은 “서민(庶民)은 실로 나라의 근본이다. 자주(自主)는 오직 민에게 달렸고 독립도 민에게 달렸다. 임금이 아무리 자주를 하려고 해도 민이 없으면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나라가 아무리 독립을 하려 하여도 민이 없으면 누구와 더불어 하겠는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윤음은 여전히 한문 체였다. 그 후 23일 만인 1895년 1월 30일(음력 1월 5일) 위 윤음을 뒷받침하는 「내무 아문령(內務衙門

5) 「홍범 14조」 자체가 최초의 국한문 혼용의 공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종묘에서 이를 서고(誓告)한 다음 날(1895년 1월 8일: 음력 1894.12.13)에 한문, 국한문, 국문 세 가지 형태의 문안으로 배포하였다는 지적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istory.go.kr)] 그런데 『고종실록』에는 한문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두 가지 문안 또는 관계 기록은 실려 있지 않다. 『고종실록』은 모든 백성에게 알려야 할 내용의 교서류는 국한문 혼용체만을 취하여 실었지 한글본 형식은 취하거나 올리지 않았다. 홍범 14조의 국한문 혼용체, 순 한글본 등은 아마도 나중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6)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 (history.go.kr)에 「홍범 14조」가 1888년의 박영효 「건백서(建白書)」의 영향을 언급하였다. 아마 「홍범 14조」 반포 당시 박영효가 내부대신이었고, 종묘 서고 후 「내무아문령」으로 「홍범 14조」의 내용이 공표된 점을 유의한 설명으로 보이나, 「건백서」와 「홍범 14조」는 내용에 유사성이 전혀 없다. 유길준이 「홍범 14조」를 작성했다는 설이 있고, 공표 당시 유길준이 박영효 밑의 내무협판(內務協辦)이었던 사실이 합쳐져 빚어진 오해로 보인다. 「홍범 14조」 같은 중대한 문건을 내무협판 유길준이 작성하였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노우에 공사의 20개 조 개혁안이 제시된 뒤, 국왕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조선 정부의 의견을 보태어 14개 조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어에 능통한 유길준이 통역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수 있다. 이 상황이 「작성설」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7) 「홍범 14조」를 포함한 갑오경장에 관한 종래의 연구가 일본의 영향을 과도하게 평가한 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2015년 간행의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 1895~1946』에 이에 관한 견해를 대강 표시하였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앞으로 별도의 논고를 통해 전면적인 검토를 가질 예정이다.

습」이 포고되었다.⁸⁾ 우리 대조선국은 본래 당당한 자주 독립국이었는데 중간에 청나라의 간섭을 받아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고 나라의 권위가 훼손되어, 성상 폐하께서 자주독립하는 큰 기초를 굳건히 세우고자 하니 청나라를 사모하여 근거 없는 거짓말을 꾸며 민심을 현혹하거나 국시를 흔들어 놓는 일이 있으면 이를 국가의 역적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이 박영효가 대신으로 있는 내무아문 이름으로 나온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 공문이었다.(예시 1)⁹⁾

1895년 2월 23일(음력 1월 29일) 군주는 「문벌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 등용의 조령(詔令)」을 내렸다. 이것은 두 번째 국한문 혼용체 조서였다. 덕행과 재주가 있고 현명하고 단정한 사(士)가 있으면 신분이 어떻든 간에 쓰겠으니 그런 사람이 고을에 있으면 지방관은 그를 서울로 올라가도록 권하라는 내용의 지시였다. 여기서 사(士) 곧 선비는 신분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으니 독서로 글을 아는 사람을 뜻한다. 이 조령 사흘 뒤 2월 26일(음력 2월 2일)에 다시 장문의 국한문 혼용체의 조서가 반포되었다. 교육에 관한 조령이었다.¹⁰⁾ 주요한 대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현대문으로 고침)

(가) 세계의 형세를 살펴보면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는 모두 인민 교육이 잘 되어 있다.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므로 짐은 군사(君師)의 지위에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나) 허명을 없애고 실용을 숭상하는 교육 강령(綱領)으로 **덕양(德養) 체양(體養) 지양(智養) 셋을 제시한다. 덕양(德養)**은 오륜의 행실을 닦아 세속의 기강을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행복을 증진케 하는 것이다. **체양(體養)**은 동작에 도를 가지고 근면 정신을 키우고 몸을 튼튼하게 하여 병이 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지양(智養)**은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장·단점을 통찰하여 개인의 사사로움이 아니라 공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짐은 너희 신민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中興)하는 큰 공로를 이룩하고자 한다.

8) 『고종실록』 당해 일조(음력). 이하 잇따라 반포되는 국한문 혼용체의 조서는 『고종실록』 당해 일조 참조.

9)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 공문이란 의미가 있으므로 부록에 사진으로 예시한다.

10) 이 조서는 지금까지 교육사 연구에서 일본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1890)와 비교하여 이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여 그 의미를 과소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제에서 메이지(明治) 천황의 「교육칙어」와는 내용 차이가 클뿐더러 분량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조서가 국한문 혼용 1,382자에 달하는 장문인 반면,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는 500자 정도의 단문이다.

(다) 나라의 분개를 풀어줄 사람은 오직 신민이며, 나라의 모욕을 막을 사람도 오직 신민이며, 국가의 정치제도를 닦아나갈 사람도 신민이니 힘써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 신민의 마음은 또한 짐의 마음이다.

(가) 부분의 군사 즉 임금 스승은 선대왕 정조가 소민(小民) 보호의 민국 정치이념을 표방하면서 군주의 역할을 새롭게 다지면서 내세운 용어이다. 정조는 소민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유교 윤리 덕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새롭게 「오륜행실도」 언해본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삼강행실도」는 군신, 부자, 부부의 인륜의 기본을 밝힌 것이나, 「이륜행실도」는 봉우와 장유(長幼)의 사족(士族) 양반 집단 내부의 윤리를 밝힌 배타적 윤리서였다. 정조는 이 책을 허물고 두 가지를 합하여 「오륜행실도」라는 이름으로 소민을 포함한 모든 신민의 윤리 강령서로 삼았다. 고종은 정조의 이런 의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뜻으로 덕양, 체양, 지양 등 3양(養) 교육론을 ‘임금 스승’의 위치에서 새로운 교육 강령으로 택하였다.

3양 교육론은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1632~1704)가 창안한 것으로 18, 19세기 미국 중등교육에서 체육, 덕육, 지육 순서의 3육(育) 교육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19세기 말엽 시점에서 이를 조선 군주 고종이 덕, 체, 지로 순서를 조정하여 왕조의 교육 강령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다. 3양 교육론은 한국 교육사에서 지금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 조령의 내용 가운데 (다) 부분은 교육을 통한 국민 창출 의식이 역력하다. 오직 신민(臣民)이 나라의 분개를 풀어주고, 나라의 모욕을 막고, 국가의 정치제도를 닦아나갈 사람이니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는 인식은 근대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교육 강령은 과연 어떤 경로로 도입된 것일까? 일본의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와는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3양(三養) 교육을 실행 중인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86년에 문을 연 육영공원(育英公院)에 초빙된 미국인 교사들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얻거나, 같은 시기에 서양문물을 소개한 『한성순보』 『한성주보』를 통해 획득되었을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대사면(大赦免)으로 귀국하여 법부대신으로 기용된 서광범(徐光範)의 제안일 가능성이 있다. 서광범은 갑신정변 후, 1885년 6월 박영효, 서재필 등과 미국으로 가서 호러스 언더우드(1859~1916) 선교사 형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생활하다가 1888년에 워싱턴으로 옮겨가 미국 정부 교육국(教育局)에서 일하면서 「조선왕조의 교육제도」란 글을 써서 미국 정부의 교육국, 내무성, 하원 등에 보내는 보고 서지에 게재되었다고 한다.¹¹⁾

11) 이 글은 한국 소개의 글로서 평가받아 프랑스어로 번역되기까지 하였다. 방선주, 「서광범과 이범진」,

2) 관민 협력 독립협회 발족과 한글 『독립신문』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에서 전승국 일본과 패전국 청나라 사이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 제1조는 “청국은 조선국의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의 나라인 것을 확인하고, 위 독립 자주에 해를 끼칠, 조선국에서 청국에 대해 공헌(貢獻)하는 전례(典禮) 등은 앞으로 완전히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조선의 자주독립을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조선-청국 간의 조공 책봉 관계를 청산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이 청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이 대신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의 조선 사정은 일본 정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가 20개 조 개혁안을 제시하고 1894년 12월 친일인사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출범시켰지만, 국왕 고종이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와 청국과의 관계 청산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조선 자체의 숙원을 달성하는 형태로 이끌어 감으로써 이노우에 공사 스스로 패착을 인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895년 5월 28일 (음 5.5) 총리대신 김홍집의 사임은 이의 주요한 표지였다. 내무대신 박영효가 그 자리를 이었다.

군주 고종은 3일 뒤 31일에 두 사람을 부른 자리에서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1월에 「홍범 14조」의 선포로 대조선국의 고유한 독립기초를 확정한 뒤,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하여 세계에 이를 드러내는 빛을 더하였으니 이 영예를 기념하는 독립 경축일을 정하라고 지시하였다.¹²⁾ 군주가 오래 바라온 청나라와의 구 전례 관계를 청산한 것을 자축하는 경축 행사를 추진하게 한 것이다. 총리대신 박영효는 왕의 지시에 따라 6월 6일에 창덕궁 연경당(演慶堂) 후원 일대에서 축하 원유회(園遊會)를 열었다. 군주는 당일에 “오늘 원유가회(園遊嘉會)에 날씨가 맑고 아름다운데 우리 정부와 각국 사신(외교관)과 신사와 기업인[土商]이 하나가 되어 즐기니 이는 참으로 ‘세계상의 화평한 복’”이라는 내용의 글을 내렸다.¹³⁾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는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4월에 본국 정부에 사의를 표명하여 5월 30일에 수락 전보를 받았다. 6월 5일 입궐하여 조선 군주에게 하직 인사를 하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12) 일본제국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굳이 이 조약에 조선이 자주 독립국인 것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은 것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13) 『고종실록』 해당일 조. 기자 출신 일본 역사가 기꾸치 겐조(菊池謙讓)는 뒷날 이 원유회에 대해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이 가든파티에 내외의 신사 숙녀 3천여 명이 초대되었고, 이는 거의 내부대신 박영효의 뜻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독립제(獨立祭)라고 불렀으며, 이 제전과 송별회의 위원장은 김가진(金嘉鎭)으로 일체의 취향은 박영효의 지휘로 행해졌다”라고 적었다. 菊池謙讓, 『近代朝鮮史』 하권 「朴泳孝의 亡命」, 1939, 380~382.

고, 6일의 원유회는 의전상 빠질 수 없어 일본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곧 조선을 떠났다. 1894년 10월 부임 후 일본제국 정부의 뜻을 받들어 조선 속국(屬國) 화를 목표로 조선 군주 즉과 별인 7개월여의 씨름은 조선 군주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곧 일본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6월 6일 원유회는 ‘박영효의 날’이라고 불릴 정도로 총리대신 박영효에게 영광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일본 공사관 측의 음모로 영광의 날은 오래 가지 못했다. 총리대신 박영효는 왕궁 경호의 방책으로 신설한 훈련대(訓練隊)를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훈련대의 규모를 갖추어 6월 23일 어전에서 왕궁의 위병(衛兵)을 훈련대로 바꾸기를 건의하였을 때, 왕은 뜻밖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박영효는 그날 바로 사표를 냈다. 군주는 7월 6일(음. 윤 5.14) 법부에 그를 엄하게 조사하여 정죄하라는 왕명을 내렸다.¹⁴⁾ 갑신년의 문제를 용서해 주고 특별히 충성을 다할 기회를 주었는데 “도리어 끝까지 나쁜 생각을 고치지 않고 은밀히 반역을 꾀하여 그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하였다. 박영효가 권세를 밟고 왕비를 폐하는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였다. 이에 박영효는 즉각 서울을 떠나야 했다. 그는 곤경 속에 오히려 일본 공사관 병력 1개 소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용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는 기이한 광경의 주인공이 되었다.¹⁵⁾

박영효가 떠난 뒤 7월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새로운 현안이 제기되었다. 일본 히로시마(廣島) 소재 대본영이 삼국간섭으로 랴오둥반도를 포기하면서 일본군 1개 대대를 한반도에 잔류하기를 희망하였다. 조선 정부가 시설한 전신선, 이에 더하여 전쟁 중에 일본군이 추가로 시설한 전신선을 일괄 일본군이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군주 고종은 일본 측의 요구를 한마디로 잘라 거절하였다. 조선 땅이 일본군이 벌인 전쟁의 전장 터가 된 것만 해도 큰 피해라면서 전쟁이 끝났으니 전면 철수하라고 답하였다.¹⁶⁾

14)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윤5월 14일 갑인 조.

15) 왕의 명령은 법부에 엄격한 신문으로 정죄(正罪)하게 하면서도, “고약한 우두머리를 잡았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내버려 두고 따지지 않고 널리 용서해 주는 은전(恩典)”을 베풀 것으로 기록되었다. 주 14와 같음. 기쿠치 겐조(菊池謙讓)는 위 「박영효의 망명」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본 공사관 측에 사사키 류기치(佐佐木留吉)란 모사가 있었는데 대원군의 거처를 무상으로 드나드는 홍제희(洪在禧)를 찾아가 필담을 하던 중에 나온 “박영효 근일 폐비하려 한다(朴泳孝近日將廢妃)”라는 문구를 몰래 가슴에 감추어 나와 이를 왕비 측과 가까운 심상훈(沈相薰)에게 전하였고, 심상훈은 놀라 이를 바로 왕에게 전달하였다. 왕은 즉각 이것이 일본 공사관 측의 밀계라고 간파하였는지, 엄단 조치를 지시하면서 그에 대한 체포령은 내리지 않았다. 菊池謙讓, 앞 책, 1939, 381~384.

16) 金文子,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 高文研, 2009. : 김승일 역, 『조선왕비살해와 일본인』, 태학사,

조선 군주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퇴임한 이노우에 가오루 전 공사가 나섰다. 군주에게 청국으로부터 받는 배상금에서 300만 엔을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조선 국왕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이노우에는 왕비에게도 기부금을 제안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대본영은 비상수단을 취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조선 정국에 비상사태를 만들어 이를 구실로 일본군이 수도 한성을 장악하고 친일정권을 세워 일본군의 잔류를 승인 받는 절차를 밟는다는 계략이었다. 8월에 이노우에 가오루가 후임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와 함께 한성으로 와서 조선 군주를 알현하여 후임을 소개하고 돌아갔다. 신임 미우라 고로 공사는 대본영의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가 대본영의 밀명을 수행할 책임자로 선임한 자였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황족과 화족(華族)의 교육기관인 가쿠슈인(學習院)에서 천황제 국수주의 교육을 지휘하던 자였다. 그는 '비상사태'로서 왕비살해를 음모하여 10월 8일 대원군을 앞세워 민관 장교 8명이 번복하여 난인 패를 이끌고 경복궁 내 건청궁을 범하여 왕비를 살해하는 만행을 지휘하였다.¹⁷⁾ 1895년 상반기의 자주적 '개혁'은 이로써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대원군을 앞세운 왕비 살해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0시부터 시작하여 새벽 4시까지 모든 상황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시간 계획의 차질로 아침 7~8시에 종료하게 됨으로써 일본인들이 자행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¹⁸⁾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곤경에 처하였으나, 계획대로 김홍집을 다시 총리대신으로 앉히고, 군주를 건청궁(경복궁 내) 안에 가두다시피 압박하였다. 1896년 2월 11일(양력) 새벽 군주는 3개월 만에 건청궁(경복궁)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에 임시 거처를 잡은 군주 고종은 당일에 그간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무리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국한문 혼용체의 조서가 다시 나왔다. 러시아 공사관 체류 1년 사이에 국한문 혼용체의 조서 또는 윤음이 여러 차례 내려졌다. 그간에 국정 마비의 고초가 신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하였다. 군주는 이를 뒤 2월 13일에 그간의 사태를 '대소인(大小人)'에게 알리는 윤음을 내렸다. "군주는 백성의 표준이니 임금이 아니면 백성들이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은 일거일동(一舉一動)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귀중하다"라는 말을 앞세워 그간의 사태를 요약하고, 시국이 안정되면 환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¹⁹⁾ 2월 13일 같은 날에 아래와

2011. 왕비 살해사건에 관한 서술은 전적으로 이 책에 근거한다.

17) 金文子, 앞 책, 2009, 187~191쪽 : 번역본, 222~224쪽.

18) 金文子, 앞 책, 2009, 308~309쪽 : 번역본, 349~351쪽.

19) 『고종실록』 해당 연월일 조.

같은 조서(詔書)가 뒤를 이었다.²⁰⁾ 예의 국한문 혼용체의 조서였다.

(전략) 개국(開國) 503년(1895-인용자) 6월 이후로는 나라가 문명(文明)하고 진보한다는 명색만 있고 결실은 없으므로 많은 백성[群黎百姓]이 의아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아! 짐이 덕이 없어서 그런가, 정부의 믿음이 서지 못하여 그런가, 일을 담당하는 신하[治工]들이 게을러서 그런가? 밤낮으로 두려워함이 범의 꼬리를 밟는 것과 같으니 그 원인을 따져보면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않아서 그렇다. 일체 중앙과 지방의 공납 장부(公納帳簿)에 올라 있는 이포(吏逋: 장부상의 부채)와 백성들이 미납한 것과 공인(貢人)들에게 남아 있는 채무로 개국 503년 6월 이전에 기록된 것은 모두 탕감하게 함으로써 조정이 돌보려는 뜻을 보이고자 한다.

조서는 “개국(開國) 503년 6월” 이후의 상황 곧 1895년 6월 6일 창덕궁 연경당 일원 독립 자축 원유회 이후의 상황을 문제시하였다. 그 이전에 ‘문명 진보’를 위한 시책이 강구되었으나, 그 이후 자연재해와 어려운 사태가 거듭하여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인민이 나라의 중심이라고 선언한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를 만회하고자 1895년 6월 이전까지 각 고을이 진 채무를 모두 탕감하여 민의 곤궁을 들도록 하였다.

군주의 러시아 공사관 체류는 새로 들어갈 궁으로 경운궁(慶運宮)을 택하여 토목공사가 시작됨으로써 환궁은 1년 뒤 1897년 2월 20일로 잡혔다. 군주의 거처인 함녕전(咸寧殿)을 비롯해 주요 기간 시설과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 1년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에 ‘문명 진보’를 위한 사업이 실제로 적지 않게 추진되었다.²¹⁾ 그 가운데 위 조서에 바로 이어 1896년 2월 20일에 개국(開國) 504년(1896) 칙령(勅令) 제145호로 학부(學部)의 학부령 제1호 「보조 공립 소학교 규칙(補助公立小學校規則)」을 반포하였다. 이는 1895년 2월에 내린 「교육 조서」의 3양 교육의 강령을 실천하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었다. 나라 중흥을 위해 일반 백성의 교육을 앞세워야 한다는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 이 조치가 「칙령」으로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황제를 칭하지 못하고 ‘대 군주’란 호칭으로 ‘개국’ 연호를 쓰면서 조서를 황제의 공문 형식에 해당하는 ‘칙령’으로 반포한 것은 ‘제국’의 출범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공사관 체류 1년은 사실 1897년 10월 왕조가 대한제국으로 거듭나는 준비 기간이 되었다.

20) 『고종실록』 해당 연월일 조.

21) 1896년 9월 말의 내부령 「한성 내 도로의 폭을 개정하는 건」으로 시작된 서울 도시개조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태진, 「대한제국의 서울 황성 만들기 - 최초의 근대적 도시개조 사업-」,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필(移驛, 어가의 이동을 뜻함)하여 1년간 체류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라는 이웃 나라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 한 방편이었다. 이 상황은 독립에 대한 염원을 더 절실하게 만들었다. 1896년 4월 7일 정부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한 서재필에게 이를 주관하게 하였다. 갑신정변 연루자가 한 명이 더 발탁, 기용되었다. ‘문명 진보’ 사업을 위해 자격을 갖춘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인사였다. 그가 주필로서 쓴 발간사는 (1) 조선인을 독자로 하여 상·하 또는 서울·지방의 구분 없이 ‘조선 전국 인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알아야 할 것을 알리고자 한다 (2)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백성에게,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서로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며, 언문으로 써서 남녀 상하 귀천의 차별 없이 모두 볼 수 있게 한다는 점 등을 밝혔다. 1895년 연초부터 나온 국한문 혼용체 교서에 뒤이어 한글 전용의 신문이 나온 것은 상하 소통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었다. 군주는 ‘자주독립’을 군주나 정부만이 아니라 관·민 협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독립협회를 발족시키고, 정부와 민간 간의 소통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순 한글 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²²⁾ 외국인들이 조선 사정을 알 수 있도록 영문판을 함께 내도록 하였다. 영문판은 서재필을 기용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서재필은 발간사를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인민의 소견과 지혜가 진보하게 될 것을 믿는다. 논설을 그치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폐하에게 송덕(頌德)하고 만세를 부른다”라는 말로 끝맺었다. 독립신문은 곧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명 진보’의 실효를 위해 창간된 준정부 기관지였다.

3) 국채보상운동의 국민의무 의식

1904년 2월부터 일본제국은 러시아와 대전을 벌였다. 삼국간섭 후, 러시아의 조차지가 된 랴오둥반도를 다시 확보하고 조선 반도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 조선왕조를 대한제국으로 높이고 서양 열강의 자본을 차관으로 유치하여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중립국으로 승인받는 것을 자주독립의 지위를 확보하는 방략으로 삼았다.²³⁾ 그러나 일본제국은 처음부터 한반도를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것이 필수였으므로 러일전쟁의 전시 무력을 전쟁 초기부터 대한제국 주권 침식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2)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태진, 앞의 책, 2000, 34~37쪽 참조.

23) 이태진, 「대한제국의 산업근대화와 중립국 승인외교 -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 청경예식 기획의 배경」,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대한제국,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다』, 국립고궁박물관, 2018.

1904년 1월 러일전쟁을 목전에 두고 대한제국은 구미의 수교 10개국에 전시 중립을 통고하여 5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²⁴⁾ 그러나 일본은 이를 전혀 무시한 가운데 교전 당사국이 아닌 대한제국의 수도 서울과 압록강 일대에 수 개 사단 규모에 달하는 일본군을 진입시켰다.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 대해 첫 번째로 강요한 협약으로서 「의정서」(1904.2.23)는 한반도 내의 특정한 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의 「(제1차) 일한협약」(1904.8.19)은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용빙(傭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협약」에 근거하여 서울에 온 재정 고문(目下田鍾太郎)은 한국에 일본의 제일은행권을 통용시키는 한편 대한제국 정부에 대해 차관 공세를 펴 거액의 채무국으로 만들어 올라미를 씹었다.

1905년 11월 보호조약을 강제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듬해 6년 1월에 통감부가 설치된 후, 이른바 시정협의회(施政協議會)의 이름으로 ‘근대화’ 사업을 빙자하면서 계속 한국 정부에 안긴 차관 액수는 1,300만 원에 달하였다. 1900년 전후에 한국 정부가 구미 열강을 상대로 벌인 차관 도입 정책에 대한 역 보복 행위였다.²⁵⁾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호응이 일어나 1년 만에 빛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모았다.²⁶⁾

『황성신문』은 광무 11년(1907) 2월 15일 자 1면에 「2000만 국민을 불러일으켜 8만 2천 리 땅에 독립성을 쌓자(喚起 二千萬 國民하여 築八万二千里地獨立城)」라는 제목의 글을 사설로 실었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진 빚 1,300만 원은 나라의 형편으로는 갚기가 어려우니 ‘2천만 국민’이 나서 갚아 ‘독립의 성’을 쌓자고 부르짖었다. 모금의 주체가 이제 ‘백성’ ‘만성’ ‘인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표현되고, 모금하여 보상하는 운동 자체를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는 곧 한국사에서 국민이 탄생하는 확실한 역사적인 순간으로서, 그것도 의무를 앞세운 국민 탄생의 모습이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예로서 주목할 점이 많다. 보상 운동의 중심 기구가 ‘중앙 의무사(義務社)’라고 이름을 지은 점도 눈을 끈다.

24) 대한제국의 전시 중립국 선언은 1904년 1월 28일 현재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등 5개국 이 승인 의사를 보내왔다. (金文子, 『日露戰爭と大韓帝國』, 高文研, 70쪽, 2014)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방해하는 공작을 벌이면서 영국, 이탈리아 2개국만 승인한 것으로 공표하였다. 이 방해 공작에 관해서는 金文子, 「不可視された大韓帝國」(『歴史學研究』 No. 946, 2016.7) 참조.

25) 1903년도의 국가 예산이 1,300만 원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일본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26)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7, 2019 참조.

4) 사회단체 잡지의 국민·국가 관련 논설 범람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에 대해 ‘보호조약’을 강제하여 1906년 1월에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부는 외교권 대행을 구실로 설치되었지만 실제로는 ‘시정개선협의회(施政改善協議會)’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내정에도 깊이 간여하였다. ‘시정개선’의 이름으로 대한제국이 그동안 수행해온 각종 근대화 사업을 일본 측으로 넘기거나 탈취하면서 식민지 체제 확립을 위한 제반 조사와 제도를 수행하거나 고쳤다. 대한제국 황제는 이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06년 8월로 예정된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보호조약’이 불법적으로 강제된 것을 알리고 이를 무효화 시킬 것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보호조약’ 강제 후, 대한제국 황제가 헤이그 평화회의의 첫 소집자로서 제2차 회의에도 초청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로부터 대표 파견을 요청받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를 1년 연기시키는 운동을 폈다.²⁷⁾ 그리하여 회의는 해를 넘겨 1907년 6월에 열리었다.

대한제국 황제가 보낸 3인의 특사는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였다. 이 사실이 현지의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도 거짓 조직으로 해산하였다. 해산당한 군인들은 각지로 흩어져 각계각층의 ‘국민’과 함께 주권 회복을 위한 군사 항쟁을 벌였다.

〈표 2〉는 바로 이 시기에 여러 사회단체가 발행한 잡지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단체의 발족과 잡지의 간행은 거의 동시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각 단체의 활동은 잡지 발행에 집중되었다. 이 표에 제시된 잡지 이전에 1895년에 일본 게이오 의숙(慶應義塾)에 파견된 ‘관비 유학생’들이 1896년에 그곳에서 간행한 『친목회 회보』가 있다. 이 잡지는 한국 근대 잡지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지만 1896년 2월, 6월, 10월 세 차례 발행으로 그쳤다.²⁸⁾ 관비 유학생 파견은 일본 정부가 친일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요청해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 군주가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필’ 하면서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 1896년 말에 정부의 유학비 지급이 중단되어 유학생들은 미국, 유럽으로 떠나거나 일본에 그대로 체류 또는 귀국하였다.

〈표 2〉의 『대조선독립협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는 1896년 7월 2일에 관민 협동 단

27) 金庚姬, 「ハーグ `密使` と `國際紛爭平和的處理條約`」, 『明治大學文學研究論集』十二号, 226~227쪽, 2000. 이태진,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조약 강제와 저항의 역사-』 지식산업사, 2016, 192~193면

28) 이하 『친목회 회보』에 관한 서술은 앞의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2000, 41~50쪽 참조.

체로 발족한 독립협회의 월간 잡지였다. 1896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7호를 내는 데 그쳤다. 이 잡지는 국내 간행 잡지의 효시였지만 독립협회가 주한일본공사관의 공작으로 친일 반정부 성향을 띠면서 해체당하여 잡지 간행도 중단되었다.²⁹⁾ 이 잡지 편집 진에는 귀국 관비 유학생 몇이 참여하여 반정부 성향에 가세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1906년부터 여러 사회단체가 등장하고 각기 단체의 이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잡지를 간행하였다. 이 현상은 1905년 11월 ‘보호조약’ 강제로 국가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식인 사회 노력의 일단이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이 잡지들은 ‘국가’ ‘국민’에 관한 논설을 신지 않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였다. 국가, 국민은 이제 지식인 사회에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하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1907년 2월 국채보상운동 논설은 나라가 부당하게 진 빚을 갚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3. 광무제 고종의 주권 이양 선언

1907년 7월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황제(고종)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8월에 황태자를 황제의 위에 올리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 황제가 거의 움직이지 않다시피 하자 통감 이토는 영친왕을 인질로 일본으로 데려가는 계획으로 압박하였다. 퇴위당한 황제가 11월 15일에 종묘를 다녀온 뒤 18일에 비로소 새 황제도 종묘를 찾아 선대 신위 앞에서 즉위에 임하는 서고(誓誥) 의식을 치렀다. 한편, 1908년부터는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전국이 전쟁 상태가 되다시피 하였다. 일본 육군 통계에 따르면 1908년 한해의 교전 회수는 무려 1,976회, 참전 ‘의병’ 수는 82,767명이나 되었다.³⁰⁾

통감 이토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국인들은 일본의 보호국이 된 것을 환영하는 것으로 거짓 선전해왔기 때문에 ‘의병’ 진압을 위한 본국으로부터 병력 증파 요청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국제사회가 의아스러워 할 것이 우려되었다. 본국 정계에도 1905년 11월에 ‘보호’보다 ‘병합’을 주장했던 강경파가 그의 ‘보호국 정책’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병력 증원 문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토는 한국인들에게 유화정책을 써

29) 독립협회 일부 회원의 변절 행위에 대해서는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의 서장의 3. 「독립협회의 의회개설 운동의 대일 의존성」 참조.

30) 이하의 의병 투쟁과 순행에 관한 서술은 이태진,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조약 강제와 저항의 역사-』, 지식산업사, 2016, 제5장 「한국 의병의 봉기와 통감 이토의 사임」에 의거한다. 의병에 관한 일본 육군의 통계는 森山茂徳, 『日韓併合』, 吉川弘文館, 1992, 171~172쪽.

보기로 작성하였다. 한국 정부와 통감부의 공동행사로 이토 자신이 한국황제와 함께 남, 북 지방을 기차를 이용하여 순행(巡幸)하는 행사를 해보기로 하였다. 자신이 황제를 잘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항의 기세를 완화 시켜 볼 속셈이었다.

1909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대구, 부산, 마산을 다녀오고[南巡],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평양, 의주, 개성을 다녀왔다[西巡]. 순행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고육지책이었지만 실제로도 잃은 것이 더 많았다. 이토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 행사는 그가 통감의 직을 사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황제 일행이 탄 열차가 도착한 곳에 나온 거대한 환영인파가 문제였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남순 때 대구에서는 2천, 부산에서 “항구를 가득 메운 인파”, 마산에서 3만을 헤아리는 인파가 황제를 환영하였다. 서순 때는 숫자가 정중 뛰어 10만 인파가 세 차례나 거듭하였다. 평양은 왕래 길에서 각 10만을 헤아렸고, 귀경길의 마지막 주필지(駐蹕地) 개성에서도 10만이었다. 이토는 여러 수단으로 환영인파와 황제와의 유대를 꺾거나 저지해보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공동행사의 원칙은 태극기와 일장기를 함께 들고나오기로 했으나, 한국인으로 일장기를 흔드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2월 4일 순행에 동행한 대소 고하의 일본인 관현을 통감 관저에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그리고 2월 10일 전후 이토 통감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 실제로 그는 8일에 창덕궁의 한국황제를 찾아 인사를 한 뒤, 10일에 서울을 떠났다. 그는 도쿄 근처의 오이소(大磯) 별저(別邸)에 칩거하다가 4월 23일 천황을 찾아 통감 사임의 뜻을 표하였다. 5월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가 후임으로 정해져 7월에 다시 서울로 와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돌아갔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사직을 결심하고 서울을 떠난 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태황제(고종)가 개국 517년(1909) 3월 15일 자로 「서북간도 및 부근 각지의 민인 등 처에 효유한다(諭西北間島及附近各地民人等處)」는 조칙을 내렸다.³¹⁾ 예의 국한문 혼용체로서 매우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구절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현대문으로 윤문)

31) 이 자료는 위 이태진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조약 강제와 저항의 역사』 제1장 2-1) ‘대한제국 조약 원본의 압수’에서 다룬, 1910년 5월 통감부 압수 고종황제의 주요 보관 문건 목록 중 甲号 一의 四「西北間島及附近各地民人等處에 對한 太皇帝의 密諭」로 나온다. 따라서 원본은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藏書閣 왕실도서관에 필사 부분이 전한다. 이 자료는 『宮中秘書 全 V.1』(이왕직실록편찬회, 1927)에 수록되어 있다.

- (1) 슬프다! 짐(朕)이 조종(祖宗)의 크고 큰 터전을 이어받고서도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니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무리 후회해도 다할 수가 없다. 짐이 참으로 부덕하니 너희 만성(萬姓)이 누가 나를 믿고 따르겠는가.
- (2) 슬프다! 짐이 너무 상심하여 차마 말을 잊지 못하노라. 꿈틀거리던 섬 오랑캐(島夷)가 긴 뱀(長蛇)이 되고 큰 멧돼지(封豕)가 되어 우리 팔역(八域)을 잡아먹고 또 흉한 무리(간신배-인용자)가 이(利)를 쫓아 세(勢)에 붙어 너희 만성을 짓밟고 으깨어 절단 냈다.
- (3) (그래도) 망했다고 말하지 말자. 너희 만성이 있지 않으나. 성현의 책[訓, 書傳-인용자]에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民惟邦本)이라”고 하였듯이 이는 **나 한 사람의 대한(大韓)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 만성의 대한이다. 독립이라야 나라[國]며, 자유라야 민(民)이니** **나라는 곧 민이 쌓인 것[積民]이요, 민은 선량한 무리[善群]이다.**
- (4) 오호라! 너희는 지금 하나가 되어 그 심력(心力)을 우리 대한을 광복하는 데 써서 자손 만세에 영원히 의뢰케 하라. 너희 몸[體]을 튼튼히 하고, 너희 피를 뜨겁게 하고, 너희 배움을 닦아, 그릇(器)에 채워(藏) 때를 기다려 움직이고, 함부로 덤비지 말고, 계를 러 늘어지지 말며, 너무 나서지도 뒤지지도 말고, 기회를 적중시키되 반드시 모험하면서 인내하다가 마지막에 대훈(大勳)을 이루라.
- (5) 오호라! 어찌 내가 일깨운다는[有誥]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짐은 참으로 부덕하다.

태황제의 호소는 다음과 같다. (1) 나라를 잃게 된 상황을 전적으로 자신의 부덕 탓으로 돌렸다. (2) 섬나라 오랑캐가 점점 커져 우리 강토를 집어삼키고 이에 부화뇌동한 간신배들을 규탄하였다. (3) 그래도 여러분 만성이 있으니 망했다고 말하지 말자고 하였다. (4) 이 나라 대한은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성의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나라는 독립이라야 나라며, 민은 자유인이어야 하며 자유인이 쌓인 것이 곧 나라이며, 민은 선량한 무리라고 단언하였다.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명료한 ‘근대적인 해석’이다. (4) 여러분의 심력으로 광복해 달라는 당부는 자신이 1895년 2월에 선포한 덕양, 체양, 지양의 3양 교육 강령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그렇게 심력을 키우되 서둘지 말면서 모험 곧 도전을 부단히 하여 마지막에 큰 공을 세워달라고 부탁하였다. (5) 큰 죄인인 내가 어찌 여러분을 일깨운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다시 자책하는 말로 끝을 맺었다.

태황제가 이 조칙을 쓰고 있을 때, 대한제국의 ‘만성’은 국민 의식을 발동하여 항일 전선에 나서고 있었다. 1908년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던 ‘의병’들은 1909년 1월 순종황제의 순행 기간에는 총부리를 잠시 거두고 ‘만성’은 황제(순종)의 열차가 머무는 곳에 나와 태극기

를 흔들고 만세를 불렀다. 2월 초 순행이 끝나자 '의병'들은 다시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 앞의 일본 육군 통계는 1909년 2월부터 6월까지 한국 의병과의 교전 회수를 1,738회, 참전 의병 수를 38,593명으로 기록하였다.³²⁾ 그들은 이제 전날의 의병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국군이였다. 이 시점 이후 전날의 의병에 해당하는 조직은 의군(義軍)이라고 부르는 변화를 보였다.

1907년 7월 광무제(고종)는 강제 퇴위당한 후 바로 간도에 나가 있는 관리사 이범윤(李範允)과 그 동지들에게 비밀리에 군자금을 보냈다. 그 군자금으로 조직된 병력은 '대한의군(大韓義軍)'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위 효유 조서는 굳이 대한의군이 창설된 지역인 「서·북 간도 및 부근 각지의 민인이 있는 곳」을 일차 수신 대상으로 삼았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대첩'을 지휘한 안중근(安重根)은 이 부대의 '참모중장'이었다. 1909년 3월 15일 자의 효유 조서는 수신 지역과 상관없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넘긴 주권 이양 칙유였다.

4. 「안응칠 역사」와 안중근의 국민의식

1) 1970년대 「안응칠 역사」 출현 상황과 판본 관계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자서전 「안응칠 역사」는 1970년대에 세상에 알려졌다. 최서면(崔書勉, 도쿄 한국연구원 원장)이 1969년 4월 일본 도쿄 고서점에서 일본어 번역본을 구매하여 이를 일본 외무성 산하 외교시보사(外交時報社) 발행의 『외교시보(外交時報)』 1074호(1970년 5월, 53~70쪽)에 「안중근자전(安重根自傳)」이란 제목으로 전문(全文)을 실었다. 이로써 『안응칠 역사』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최서면은 이 일역본은 가다카나 체로 되어있지만³³⁾, 히라가나 체로 고쳐 게재한다고 밝혔다. 1969년은 의거 60년, 1970년은 순국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 일역본은 위 『외교시보』의 활자 조판본으로만 대면할 수 있었는데, 2010년 윤병석 번역의 『안중근문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사진으로 전문이 실려서 가다카나 체로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부록: 〈판본 비교 자료 사진〉 4 참조)

1972년 김정명(金正明)이 〈메이지 백년사 총서(明治百年史叢書)〉(原書房) 시리즈의 하나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암살 기록 - 그 사상과 행동-』을 편찬할 때 위 최서면 발

32) 주 29와 같음.

33) 제국 일본에서는 가다카나 체는 남성, 히라가나 체는 여성이란 인식이 있었다.

견의 일본어 번역본 「안중근 자전(安重根自傳)」(343~371)의 전문을 실었다. 1972년 1월 1일자로 쓴 이 책의 '편찬 후기'에 최서면이 도쿄 고서점에서 입수한 번역본을 옮겨 신는다고 밝혔다.

1979년 4월 간행된, 이치가와 마사아키(市川正明, 金正明의 일본명) 편 『안중근과 일한관계사(日韓關係史)』(原書房)에 「안응칠 역사(安應七 歷史)」 한문(漢文)본이 실렸다. (부록: 〈판본 비교 자료 사진〉 0과 같음) 편자는 「서문-안중근의 옥중기(자필) 발견을 둘러싸고-」에서 이 한문본이 세상에 알려진 경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1978년 2월 11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조간에 처음 “안중근의 옥중기 발견, 나가사키 시내에서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문본이 세상에 알려졌다. 같은 해 2월 24일자 『나가사키신문(長崎新聞)』은 이 한문본 옥중기가 주일 한국대사관의 공사와 한국 대학교수 1인이 함께 나가사키에 와서 이를 진본으로 확인하고 소지자가 이를 한국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였다. [가로 18cm, 세로 12cm, 거친 종이(ザラ紙), 가라스 펜(끝부분이 가마귀(가라스) 입 모양), 116페이지 분량, 표제 「안응칠 역사」]

취재 기자는 소유자 와다나베 쇼시로(渡辺庄四郎) 씨가 1927~8년(昭和 2~3년) 무렵 고평미술상을 하고 있을 때,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사카이 노보루(境昇) 씨(고인) 님(長崎縣 南来(래)郡 國見町)에서 샀으며 사카이 씨 부친(喜明)은 조선총독부 경찰관 겸 통역이었다는 사실도 기사에서 밝혔다.³⁴⁾ 한편, 「서문」은 『아시이 신문』 나가사키 지국의 두 기자(金丸嵩, 伊藤千尋)가 쓴 기사에는 소지자 와다나베 씨가 현재 84세의 금융업 종사자로서 다이쇼(大正) 말경에 2, 3엔(円)으로 매입한 것으로 취재된 것을 함께 소개하였다.

위 「서문」에 따르면 「안응칠 역사」 원본인 한문본은 조선총독부 경시로서 안중근을 심문한 적이 있는 사카이 요시아키(境喜明) 경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이쇼 말, 쇼와 초(1924~27년경)에 나가사키의 고평미술 상 와다나베 씨가 아들 사카이 노보루로 씨로부터 구매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자료는 1978년 2월 11일에 아사히신문 지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 후 2월 24일 한국 정부에 기증되어 현재 안중근의사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평미술상

34) 사카이 요시아키(境喜明) 경시(警視)는 1909년 11월 26일, 27일, 29일, 12월 1일, 3일, 4일, 5일, 9일, 27일 등 12회에 걸쳐 안중근을 신문하였다. 한국역사연구원 편, 『그들이 기록한 안중근 하얼빈 의거 - 일본 외무성 소장 『伊藤公爵滿洲視察 一件』 11책』 (태학사, 2021.10. 간행 예정) 참조. 안중근은 『안응칠 역사』에서 “이때 한국 内部 경시 일본인 사카이(境)가 왔는데 한국어를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므로 날마다 만나 이야기를 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람이 상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니 정치적 견해는 서로 크게 다를망정 개인 인정으로 차츰 친근해져서 정다운 옛친구와 서로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적었다. 안중근의사승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 편,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 수록 「안응칠역사」(한국어 번역), 2008, 179쪽.

와다나베 씨는 1969~70년 일본어 번역본이 도쿄에서 먼저 나와 자료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한문본도 공개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치가와 마사아키는 위 「서문」에서 한문본의 첫 소지자 사카이 경시가 도쿄 일본어 번역본의 번역자가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였다.³⁵⁾ 위 「서문」은 또 도쿄 일역본의 발견자 최서면이 나가사키 한문본을 감정하고 “안중근의 직필(直筆, 친필의 뜻-필자)이 아니라 감옥 관계자가 필사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도 밝혔다.³⁶⁾ 이에 대해 이치가와 마사아키는 “「거친 용지(ザラ紙)」로 보면 직필이다. 관청 내 보고용이라면 가라스 펜으로 「거친 용지」에 쓸 이유가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치가와 마사아키는 나가사키 한문본을 안중근 친필 원본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견해는 후술하듯이 오관으로 보인다.

1979년 9월 1일 이치가와 마사아키는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憲政) 자료실 소장의 「시치조 기요미(七條清美) 문서」에서 『안중근 전기 및 논설(安重根傳記及論說)』을 찾아냈다.³⁷⁾ 이 자료는 윤병석 편역의 『안중근문집』(2010)에 사진으로 실려 서지적 파악이 가능하다. 한서(漢書) 장정 형태로 첩해진 『안중근 전기 및 논설』(부록: 〈판본 비교 자료 사진〉 1)에는 (1) 「안응칠역사(安應七歴史)」(1~44쪽) (2) 「안중근전(安重根傳)」(45~95쪽) (3) 「안중근 자전(安重根 子傳, 일어 번역)」 3종이 첩해져 있다. (부록: 〈판본 비교 자료 사진〉 2, 3, 4)

(1) 「안응칠역사」는 곧 나가사키 본과 같은 내용이며 (2) 「안중근전」은 나가사키 본의 ‘이하 생략(以下略)’ 이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3) 「안중근 자전」은 일어 번역본으로 최서면이 도쿄 고서점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최서면이 『외교시보』 1074호에 활자본으로 공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최서면이 밝힌 대로 이 일어 번역 원본은 ‘가다카나 체’로 되어 있다. 이 번역본과 도쿄 고서점 출현 본과의 관계는 더 알 수가 없다. (1), (2)는 이름을 다르게 붙였으나 내용이 연속된 것이 확실하며 필체도 같다.

이상에 소개한 시치조 기요미 문서 본과 나가사키 출현 한문본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쪽수는 윤병석 편역 『안중근문집』에 실린 것을 기준으로 한다.

35) 필자는 주 32의 『『그들이 기록한 안중근 하얼빈 의거- 일본 외무성 소장 「伊藤公爵滿洲視察 一件」 11책』에 수록된 사카이 요시아키 경시의 심문서와 대조해 보았지만, 필체가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36) 최서면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논문을 발표하였다. 「안중근 自傳攷-長崎本の 진위에 대하여-」, 『나라사랑』 34호, 1979.

37) 윤병석 편역, 『안중근문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에 사진본이 수록되었다. 윤병석의 『安應七歴史』(七條清美 文書本)에 붙인 「주기(註記)」 참조. 63쪽

〈표 4〉 「안응철 역사」 판본 비교

판본	서명	포함 내용	쪽수	『문집』쪽수
시치조기요미(七條清美) 문서 『안중근 전기 및 논설』	(1) 「안응철역사」 (한문)	1879 출생 ~ 상하이로부터 진남포로 귀국	1 ~ 44	64 ~ 107
	(2) 「안중근 전」 (한문)	1905년 12월 귀국 진남포로 이사 - 옥중생활 최종	46 ~ 95	108 ~ 158
	(3) 「안중근 자전」 (일어 번역본)		1 ~ 151	277 ~ 427
나가사키(長崎) 출현 본	「안응철역사」 (한문)	1879 출생 - 의거 4. 5일 뒤 미조부치(溝淵) 검사의 심문 시작	1 ~ 116	160 ~ 275

위 〈표 4〉에 따르면, 시치조 기요미 문서 본은 1905년 12월 안중근이 진남포에서 돌아와 항일 투쟁을 시작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1) 「안응철 역사」와 (2) 「안중근 전」 둘로 나누었다. 나가사키 출현 본은 시치조 기요미 문서 본의 (1) 「안응철 역사」 전문(全文)에 (2) 「안중근 전」의 전체 46~96쪽 중 46~78쪽까지만 실고, “이하 약(略)”이라고 표시하고 줄였다. 다시 말하면 (2) 「안중근 전」의 79~95쪽의 16쪽 분량은 나가사키 한문본에서 빠졌다. 시치조 문서 본이 완전한 것이라면 나가사키 출현 본은 불완전 본이 된다. 이에 근거한 일본어 번역본, 곧 도쿄 고서점 출현 본과 위 표의 (3)도 마찬가지로 뒷부분 내용이 빠져 있다. 시치조 기요미 문서 본이라도 (3)은 (2)를 따르지 않고 나가사키 출현본(한문본)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일어 번역이 다 같이 ‘이하 약’으로 된 한문본을 근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혀진다.

‘이하 약’으로 빠진 부분은 안중근 일행이 뤬순 감옥에 도착하여 수감 된 후, 하얼빈 일본 영사관에서 한번 심문했던 미조부치(溝淵) 검사가 다시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가해한 이유를 묻자 안중근이 답변한 내용이 나오는 대목이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개」가 나오는 부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죄악 15개」에서 열다섯 번째로 “일본 천황폐하의 부황(父皇)인 태황제(고메이孝明 천황-필자)를 살해한 죄”를 들었다. 안중근은 이후 서술에서 이 진술을 한 뒤로 법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적었다.³⁸⁾ 즉 나

38) 첫 공판에서 영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변호사들이 변호권을 얻지 못하고, 심문에서 스스로 자세한 답변을 하려니 “재판관이 문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을 금지하고 나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갔다.

가사키 출현 본의 필사자는 이 대목이 나중에 원본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 유포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하 약”이라고 잘라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시치조 기요미 문서의 (2) 「안중근전」은 같은 한문본인데도 “이하 약” 없이 전문을 온전하게 다 싣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에 모두 4개의 자료가 나와서 「안응칠 역사」는 국내에서도 국역본이 출간되어 안중근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³⁹⁾ 나가사키 출현 한문본은 시치조 기요미 문서 본이 나옴으로써 ‘직필’ 곧 안중근이 직접 쓴 것일 가능성이 없어졌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안중근의 공술 내용이 잘린 것(한문본)이 친필 본 일수 없다. 친필 본을 주장했던 시치조 기요미는 1979년에 자신이 시치조 문서 본을 찾아냈을 때, 나가사키 출현 본이 안중근 ‘직필’이 아니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시치조 기요미 문서 본의 (1) (2)는 안중근 친필 본인가? (1) (2) (3) 셋은 모두 한 사람이 쓴 필체로 보일 정도로 서로 필체가 매우 비슷하다. 그렇다면 (3) 일역본은 안중근이 쓴 것일 수 없으므로 (1) (2) 둘도 친필 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 안중근의 친필 자료로 확실한 필적은 「장부가(丈夫歌)」, 대동공보사 이강(李剛)에게 보낸 엽서, 홍석구(洪錫九) 신부에게 보낸 엽서(안중근의사 기념관 소장) 등이 있다.⁴⁰⁾ 이 유물들의 필체는 시치조 기요미 문서본 판본의 필체와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필자는 2012년에 「뤼순(旅順) 고등법원의 ‘안중근 관계자료’에 관한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의 복명서(復命書)」(국사편찬위원회, 『역사의 창』 통권 34호)를 발표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에 위원회 산하 도서관 서고에서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修史官補) 다가와 고조의 만주 일원에서 사료 조사를 마친 뒤에 제출한 보고서(「吉林 新京 奉天 旅順 大連 史料探訪 復命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도서 B178 21)를 발견하여 이를 검토하여 위 논문을 발표하였다.

다가와 고조는 1939년 8월 16일에 경성(京城)을 출발, 만주로 가서 위 5개 지역에서 사료를 조사하고 9월 2일에 돌아와 편수회 편사회장(編史會長)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나는 스스로 생각했다. “내 말 속에 칼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냐? 총과 대포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냐. … 이것은 다른 까닭이 있다. 내가 이토의 죄명을 말하는 중에 일본의 효명 친왕을 죽인 대목에 이르자 그같이 좌석을 깨어버리고(破席) 만 것이리라”라고 기술하였다. 앞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 수록 「안응칠역사」(한국어 번역), 182쪽.

39) 안중근의사 숭모회는 1978년 와다나베 쇼시로로부터 나가사키 한문본을 기증받아 노산 이은상의 도움을 받아 1979년 의거 70주년을 맞아 「국역 안응칠 역사」를 출판하였다.

40) 윤병석 편역의 『안중근문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606, 608. 다른 서간은 이 필체와 달라 법원 관계자가 필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출하였다. 필자는 이 보고서에서 다가와 고조가 뤄순의 고등법원을 방문하였을 때 직접 본 자료로서 ‘안중근 관계자료’라고 이름 붙인 목록을 주목하였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자료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이상 중에 제1 공판기록 2책의 대부분 및 제2의 안중근 관계 서류 중에 들어있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 「안중근전(安重根傳)」에 대해 법원 서기(森本盛衛)에게 등사 송부를 의뢰하여 두었다”라고 썼다. 이 자료들은 모두 등사하여 조선사편수회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가와 고조가 작성한 ‘안중근 관계자료’의 큰 목차는 다음과 같다.

- 一. 공판기록 (2책). 제1책 소계 47건, 제2책 소계 59건
- 二. 안중근 사건 관계 서류 (4책). 소계 28건
- 三. 안중근 사건에 붙인 하얼빈에서 취조(取調)한 청취서. 소계 3건
- 四. 노국(露國) 조서(調書) 번역문 2책. 소계 1건
- 五. 정대호(鄭大鎬) 기록 사(寫) 1책. 소계 1건
- 六. 불기소 피고인의 등사조서(謄寫調書) 1책. 소계 1건
- 七. 안중근 사건 관계 증거서류 신문철 1책. 소계 1건
- 八. 안응칠 외 3명 살인 피고사건 기록 사(寫) 2책. 제1책, 제2책 소계 32건

합계 173건.

위 중二的 4책 중 제4책 16건 중에 「안중근전(安重根傳)」 「안중근지역사(安重根之歷史)」 「유서동양평화론(遺書東洋平和論)」 등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 「안중근지역사(安重根之歷史)」는 곧 시치조 기요미 문서의 (1) 「안응칠 역사」, 그리고 「안중근전(安重根傳)」은 (2) 「안중근 전」과 일치한다. 시치조 기요미는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뤄순 고등법원을 방문하여 이를 필사하였거나 아니면 만주 여행에서 이미 필사된 것을 입수했을 수 있다. 시치조 기요미는 육군 장교로서 육군대학교에서 법학을 교수한 뒤 1920년대 후반 변호사 개업 중에 하얼빈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1939년 다가와 고조가 뤄순 고등법원을 방문했을 때까지 안중근 친필의 원본 「안응칠 역사」 「안중근전」은 이곳 고등법원의 ‘안중근 관계자료’ 속에 미완의 유고 「동양평화론」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2) 「안응칠 역사」에 보이는 국민의식

안중근의 자서전인 「안응칠 역사」 원본 (한문본)은 위 고찰을 통해 원래 (1) 「안응칠 역사」(「안중근지역사」)와 (2) 「안중근전」 둘로 구성되었다. (1)은 출생에서부터 1905년

11월 「보호조약」 강제로 해외 투쟁 근거지 모색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방문한 것까지 (2)는 같은 해 12월 상하이에서 진남포로 돌아와 교육운동을 필두로 펼친 항일운동의 역사를 담은 것으로 구분된다. 나가사키 출현 본이나 일본어 번역본은 (1) (2) 둘을 망라하지 못하고 (2)의 후반부 즉 일본 검찰관 미조부치 검찰관의 심문 시작까지만 담았다.

1979년 시치조 기요미 문서본의 발견으로 (1)과 (2) 두 가지가 모두 알려진 이후에 나온 한글 번역본은 (1) (2) 둘을 온전하게 다 담았다. 1979년 시치조 기요미 문서본이 발견되자 그해 안중근 의사 숭모회에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한글 번역본 『국역 안응칠 역사』를 내놨다. 원본 (1) (2) 둘은 한문본 고유의 방식대로 문단 구분이 없이 이어 쓴 것이지만, 한글 번역본에서는 편의상 12개의 단원으로 나누었다.⁴¹⁾ 한글 번역본은 (1)과 (2) 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어서 12개의 단원 나누기만 표시하였다. 집필자 안중근이 1905년 12월부터의 항일 투쟁 실행 의식으로 (1)과 (2)를 나누어 썼다면 한글 번역본에서 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 어쨌든 현행 한글 번역본의 단원 부여는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12개 단원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안응칠 역사」 단원 별 내용 요약

판본	단원 구분 및 내용	
(1) 「안응칠 역사」	제1	1879년 출생과 가족 관계, 1884년 갑신년 부친이 겪었던 일, 14세 전후 어린 시절의 학습과 포부 등
	제2	1894년 갑오년 결혼(16세), 해주 지역에서의 동학당 군사와 싸운 무용담. 그후 탁지부 대신 어윤중과 선혜청 당상 민영준의 비리에 대한 투쟁, 1896년 전후 천주교 입교 계기.
	제3	천주교 교리에 대한 이해, 우리 대한이 천주교를 통한 도덕 시대의 실현을 염원.
	제4	천주교 입교 후의 일화.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대학교 설립 노력, 뮌헨 주교에 대한 실망, 금광 감리 주(朱)가와의 투쟁, 만인계(복권회사) 소동.

41) 1979년 안중근의사 숭모회 국역본 이후 안중근의사 숭모회와 안중근의사기념관 공동 편으로 2008년에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간행하여 여기에도 숭모회 본 「안응칠 역사」가 윤문되어 실렸다. 본고 분석에서는 편의상 이를 모본으로 삼았다.

	제5	옹진군민의 돈 5천 냥을 빼앗은 전 참관 김중환(金仲煥)을 서울로 찾아가 승복시켜 돈을 내놓게 한 일. 평안도 영유군 의사(醫師) 이경주(李景周)의 아내와 재산을 빼앗은 해주부 지방대병영의 위관 한원교(韓元校)와의 한성부 법정 싸움.
	제6	부친 병환 소식. 귀환 길 고향 친구 이성룡과의 동행 중 대화. 황해도 사람들이 천주교 교인 행세하면서 협잡 하는 일 등 여러 가지 환난. 부친이 치료차 안악 읍내에 갔다가 겪은 고초. 진남포 재판소에서의 송사. 흥 신부의 압제 태도와 다툼 일화.
	제7	1905년 ‘보호조약’ 강제로 부친과 의논하여 해외 투쟁 기지 모색하기 위해 산둥과 상하이로 출국. 민영익 닥의 문전 박대. 트락 신부 조우와 조연. 귀국하여 조연에 따라 교육사업에 열중.
(2) 「안중근전」	제8	1906년 3월 진남포로 가족 이사. 삼흥학교 인수하고 돈의학교 설립하여 청년 교육 힘쓰. 1907년 국채보상 운동 참여. 일본인 순사의 조사 활동에 대한 대책. 정미 7조약 광무황제 폐위, 북간도 행. 엔치아(煙秋)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청년회 입교, 교육 활동. 간도 관리사 출신 이범윤 설득. 엄신섭(嚴仁燮) 김기룡(金起龍) 등과 만남. 지방 순회 연설 활동.
	제9	김두성(金斗星) 이범윤(李範允) 등의 의군 발족. 참모 중장 임명. 두만강 도하 투쟁. 일본군 포로의 방면 후의 고초.
	제10	동지 7, 8인과 탈주 마지막 단계의 고초. 깊은 산 외진 곳의 집 지키는 노인의 도움. 한 달 반 만에 두만강을 건너 탈주 성공.
	제11	러시아 영토 엔치아 방면 도착.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환영회. 패전 장수의 고백. 하바로프스크 방면으로 기선 타고 시찰. 사회 조직 기도. 일진회 분자들과의 충돌. 1901년 1월 엔치아 방면으로 돌아와 동지 12인과 단지동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 만주로 온다는 소문 듣고, 신문을 통해 가까운 시일 하얼빈에 온다는 보도 확인. 황해도 의병장 李錫山에게 1백원 강제로 차용 일화.
	제12	하얼빈 거사 경위. 동지 우덕순에게 계획 비밀리 약속. 수이푼 하 지방에서 유동하(柳東夏) 설득. 하얼빈 도착. 김성백(金聖伯) 집 투숙. 통역할 사람 찾던 중 조도선(曹道先) 만남. 장부가 지음. 거사 - 피체 - 구속 - 심문 (이토 죄악 15개조) - 법정 투쟁. 사형 선고 후 법원장 만남. 흥 신부의 면회 미사-성제(聖祭)-대례-작별. “손을 들어 나를 향하여 降福한 뒤에 떠나가니 때는 1910년 경술 2월 초하루(음력) 오후 2시.

안중근은 자서전으로서 「안응칠 역사」를 쓰면서 쓴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밝혔다. 첫째 리에 1909년 12월 13일(구 11월 1일) ‘쓰기 시작(始述)’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위 표와 같은 내용을 다 쓰고 나서 “이상이 안중근의 32년 동안 역사의 대강이다”라고 하고, 1910년 경술 음 2월 초 5일, 양 3월 15일 휘순(旅順) 옥중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이 ‘쓰기를 마친다(畢書)’라고 맺었다.

「안응칠 역사」 한문 원본은 116쪽, 한국어 번역본의 경우 신국판 65쪽으로 많은 양은 아니다. 위 표에 보듯이 제1에서 제7단원 다시 말하면 (1) 「안응칠 역사」 부분에서는 출생, 가족 관계, 교육, 천주교 입교와 교도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특히 부정한 관리들과의 소송 투쟁 등을 서술하였다. 이 가운데 16세 해주 지역 동학교도와의 전투는 무용담처럼 서술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 가운데 안중근 자신이 국민 또는 국민의식, 국가 등에 관한 언급에 해당하는 단어, 문장을 검토하기로 한다.

안중근은 1894년 16세로 김아려와 결혼하고, 이해에 해주에서 동학군과 전투를 벌이는 경험을 가졌다. 그리고 1897년(19세)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에 입교하여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16세가 되어 성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는 공교롭게 위에서 살핀 1895년 ‘국민 탄생’ 역사의 시작과 거의 일치한다. 그가 1907년 2월에 시작하는 국채보상운동의 평양 지역 책임자로 활동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스스로 “32년 동안 역사의 대강”이라고 밝힌 「안응칠 역사」에서 실제로 국민의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보인다.

○ 제1 사례(제3문단, 131~135쪽)

“한 나라의 임금의 정치가 공정히 하고 백성들의 생업을 보호하며 모든 신민(臣民)이 태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백성이 그 명령에 복종할 줄 모르고 전혀 충군(忠君) 애국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죄 또한 가장 무겁다 할 것이요, ... 한 나라의 임금도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천지를 다스리는 거룩한 큰 임금님은 어떠하겠습니까? ... 바라건대, 우리 대한(大韓)의 모든 동포 형제자매들은 크게 깨닫고, ... 천주님의 의로운 자식이 되어 현세를 도덕 시대로 만들어 태평 누리다가 - 무궁한 영복(永福) 누리기를 천만번 바랍니다.”

위는 천주교 신도가 되어 만물의 큰 주재자로서 천주(天主)와 한 나라의 임금 섬기는 것과의 관계를 논하고 큰 주재자로서 천주를 섬기듯 한 나라의 임금을 받드는 국민이 되어 우리 대한의 도덕 시대를 열자는 내용이다. 바로 같은 시기에 반포된 「교육칙어」의 3양 교육 강령이 덕양(德養)을 앞세운 취지와 일치하는 느낌을 준다. 「교육칙어」에서도 아직 국민이란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신민이라고 한 것도 서로 일치한다.

안중근은 제4 문단에서 대학교 설립을 위한 자신의 경험을 피력하였다. 즉 대학교 설립을 위해 흥 신부(빌헬름 신부)에게 프랑스어를 배우기까지 하여 서울로 가서 뫼텔 주교를 면담하고 대학교 설립 도움을 청하였는데, 뫼텔 주교가 “한국인이 만일 학문이 있게 되면 (천주)교 믿는 일에 좋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그런 의논을 꺼내지 마시오”라고 답하였다. 안중근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교의 진리는 믿을지언정 외국인의 심정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고 프랑스 말 배우던 것도 중단하였다고 술화하였다. 고종의 교육 정책에 크게 부응하여 교회 차원에서 대학교 설립을 계획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동조 행위이다.

○ 제2 사례(제5 문단, 139~142쪽)

안중근 자신이 송사(訟事)에 직접 나서서 겪었던 두 가지 일 가운데, 해주부(海州府) 지방대 병영의 위관(尉官) 한원교(韓元校)라는 자가 친구 이경주(李景周)의 아내를 빼앗아 간통하고 남편을 위협하여 그 집과 세간살이를 빼앗은 뒤 버젓이 사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원교를) 질책하였다.

“한가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대개 군인이란 국가의 중임을 맡은 것이다.(夫軍人者國家之重任也)** 충의의 마음을 배양하여 외적을 방어하고 강토를 지키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군인의 직분인데 너는 하물며 위관이 되어 어진 백성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재산을 토색질하고 그 세도만 믿고서 꺼리는 바가 없으니...”

위 인용문에 보이는 안중근의 군인 관은 근대적인 것으로 손색이 없다.

○ 제3 사례(제6 문단, 144쪽)

제2 사례의 송사, 곧 친구(이경주)의 억울한 사정을 돕던 중 부친의 병환 소식의 편지를 접하고 급히 행장을 꾸려 육로로 떠나면서 친구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겨울날 차가운 옥 속에 어찌 그 고생을 받는가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적었다.

“어느 날에나 저같이 악한 정부를 주먹으로 두들겨 패서 개혁한 뒤에 난신적자 무리를 쓸어 버리고 **당당한 문명 독립국을 이루어 민권(民權)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堂堂文明獨立國 快得民權自由乎)**라고 생각이 미치자 피눈물이 솟아올라 차마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안중근의 위 자유 민권 의식은 마치 광무제의 1909년의 주권 이양 칙유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서북간도 및 부근 민인 등 처」에 내린 칙유는 “독립이라야 국이며, 자유라야 민이며, 민이 쌓인 것이 나라”라고 하였다. 서로 대동소이한 발언이다.

○ 제4 사례(제7문단, 148쪽)

안중근은 1905년 11월 「을사 5조약」이 강제되자 아버지와 비밀히 상의하여 산둥반도 같은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 상하이로 갔다. 거기서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민영익(閔泳翊)이었다. 민영익은 당시 광무제의 밀명으로 상하이에서 내장원(內藏院) 소관의 홍삼 수출의 해외 업무를 맡고 있었다. 상하이에서 굳이 민영익을 찾아간 것은 그의 소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부친이 감신정변에 관계한 연고였을지 모른다. 민영익이 갑자기 찾아온 안중근을 대면할 리 없었다. 안중근은 문전 박대를 당한 뒤, “오늘날 나라가 위급해진 것은 그 죄가 모두 공과 같은 대관(大官)에게 있는 것이고, 민족의 허물에 달린 것이 아니므로 얼굴이 부끄러워서 만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 뒷날 안중근의 거사가 성공한 뒤, 블라디보스토크 대동공보(大東共報) 사장 미하일로프가 안중근 구제를 위한 국제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상하이 거주의 영국인 변호사 더글러스 경을 만난 뒤 민영익을 찾아 안중근 구제 변호비 지원을 청하자 민영익은 1만 원을 내놓았다.⁴²⁾

민영익 면담에 실패한 안중근은 그 뒤에 상하이에서 장사하는 서상근(徐相根)이란 자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도 또한 자금 대기를 거부하자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백성이 없다면 나라가 어디 있을 것입니까? 더구나 나라란 몇몇 대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당당한 2천만 민족의 나라인데, 만일 국민이 국민 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어찌 민권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若人民無之 則國家何以有之 況國家非幾個大官之國家 堂堂二千萬民族之國家 而若國民不行國民之義務 豈得民權自由之理乎) 그리고 지금은 민족 세계인데 어찌서 홀로 한국 민족만이 남의 밥이 되어 앉아서 멸망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42) 이태진,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고종황제」, 이태진 편 『영원히 떠오르는 불꽃-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지식 산업사, 2010, 84쪽 참조. 민영익의 상하이 거주 내장원 홍삼 판매 총책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월간 조선』이 후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민영익 활동에 관한 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줄인다. “민영익은 상해, 홍콩, 소주 등지에서 조선에서 가져온 홍삼(인삼) 무역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하고 대외정보를 수집하며 객지 생활을 했어요. 일시 귀국해 관직도 역임했으나 이미 국운이 다하고 외세에 따라 부침하는 정치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항일(抗日)과 친일로 이어진 명성황후 후손들의 120년 영락」, 『월간조선』 2015년 10월, 뉴스 데일리, 김태완 기자.

이 구절도 광무제의 주권 이양 선언을 연상하게 한다. 광무제는 칙유에서 “대한은 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성의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안중근은 한 걸음 더 나가 “국민은 의무를 다하여야 민권의 자유를 누릴수 있다”라고 하였다.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은 나라가 부당하게 진 빚을 국민이 갚는 것은 의무라고 하였다. 안중근은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기 2년 전에 이미 나라 구하기는 국민의 의무라는 의식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 제5 사례 (제7문단, 151~153쪽)

안중근은 상하이에서 뜻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날 아침 천주교 성당에 가서 한참 동안 기도를 올리고 문밖으로 나와 앞길을 지나가는 한 신부를 발견한다. 놀랍게도 그는 황해도에서 포교하는 르콕(각) 신부였다. 그도 안중근을 알아보고 놀라면서 자신은 홍콩에 갔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안중근이 상하이에 온 사연을 듣고 신부는 안중근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신의 고향인 알자스 로렌 사람들이 독일의 침략을 받아 모두 해외 독립운동을 꿈꾸며 출국하였다가 지금까지 수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들려면서 국내에서 국민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라고 권하였다. 신부는 국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로서, 첫째 교육의 발달, 둘째 사회의 확장(발달), 셋째 민심의 단합, 넷째 실력양성 등을 들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안중근은 이 권유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귀국하였다.

1905년 12월에 귀국한 안중근은 1906년 봄 3월에 황해도 신천(信川) 청계동을 떠나 평안도 진남포로 이사하고, 여기서 양옥 한 채를 마련하고 가옥 등 재산을 정리하여 삼흥(三興) 학교를 인수하고 돈의(敦義) 학교를 운영하였다. 삼흥은 사흥(土興) 곧 교육이 이루어지면, 민흥(民興) 곧 국민이 일어나고, 국민이 흥하면 국흥(國興) 곧 나라가 흥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돈의는 ‘민심의 단합’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는 이때 독립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금주를 맹세하였다. (이상 진남포로의 이사에 관한 서술은 문단 8의 머리에 실렸다.)

안중근은 진남포로 이사한 뒤, 바로 대구, 서울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국채보상 평양의무사(平壤義務社)를 담당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제8 문단에는 국채보상운동을 방해하는 일본인 순사와 치고받은 싸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이해 7월에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광무제를 강제로 퇴위시키자 안중근은 급급히 행장을 차려 가족들과 이별하고 북간도로 갔다고 하였다.

○ 제6 사례 (제10 문단, 164쪽)

1908년 광무제가 보낸 군자금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의군(大韓義軍)이 창설되자

안중근은 ‘참모 중장’(또는 우장군)이 되었다. 이때 그는 15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회령으로 진입하여 영산(靈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고 50명 정도를 포로로 잡았다. 그러나 포로를 심문 후에 풀어 준 것이 화근이 되어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많은 병사를 잃고 소수의 부대원과 함께 한 달 반 정도 굶주리면서 국경을 찾아 두만강 쪽으로 가는 고난을 겪었다. 그는 몇 안 되는 부하마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심경(心境)을 술회하였다.

나는 혼자서 산 위에 앉아 스스로 웃으며 생각하기를, “어리석구나, 저 같은 의병을 데리고 무슨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라.” 문득 시 한 수가 생각나 시를 읊고 다시 이르기를 “그대들은 모두 뜻대로 하라. 나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일본군과 더불어 한바탕 장쾌하게 싸움으로써 **대한국 2천만인 중의 한 분자가 된 의무를 다한 다음에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以盡大韓國 二千万人中 一分之義務然後 死以無限矣)

같은 문단(168쪽)에 며칠 만에 겨우 찾은 한 산속 집을 만난 일화가 소개되었다. 집을 지키는 노인이 먹을 것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을 준 것을 적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급할 때를 만나 그 같은 고난은 국민의 의무지요.(當次國家危急之秋 如是困難 國民義務) 더구나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쓴맛이 끝나면 단맛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소, 걱정하지 마시오.”

국민의 의무라는 표현이 과연 노인이 직접 한 말인지 안중근이 말뜻을 전하는 표현인지 가리기 어렵지만, 어느 쪽이든 안중근의 국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다.

○ 제7 사례(제12 문단, 174, 181~182, 184쪽)

1910년 2월 초 법정 투쟁에서 벌어진 상황에서 안중근 스스로 느끼거나 진술한 내용이다. 첫째, 2월 7일 첫 공판이 열렸을 때, 한국인 변호사 안병찬(安秉瓚), 전일 자신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갔던 영국인 변호사 더글러스가 모두 와서 참석했으나 전혀 변호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청만 할 따름인 상황을 밝히면서 “오늘 내가 당하는 일이 생시인가 꿈속인가. 나는 **堂堂한 대한국 국민(我堂堂大韓國之國民)**인데 왜 오늘 일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더욱이 일본 법률의 재판을 받는 까닭이 무엇인가? 내가 언제 일본에 귀화한 사람인가?”라고 탄식하였다.

끝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뒤에 법의 적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나는 **대한국 의병 참모중장의 소임**을 띠고 하얼빈에 와서 병기를 지참하여 이토를 사살한 후 포로가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뤼순구 지방재판소와는 전연 관계가 없는 일인즉 마땅히 만국공법과 국제공법으로써 판결하는 것이 옳다. (我則 大韓國義兵參謀中將之義務帶任而到于哈爾賓 開仗襲擊後 披虜到此矣. 旅順口地方裁判所 都無關係則 當以萬國公法與國際公法判決 可耶)”

안중근은 최후로 법정에서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을 위와 같이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즉, 나는 대한의군 소속의 지휘관으로서 적장을 사살한 것이므로 만국공법 곧 1899년 제1차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서 다자 조약으로 정한 ‘육전 포로에 관한 법’을 적용하라는 항변을 남겼다. 안중근이 속한 대한의군은 광무제가 퇴위를 강제당하면서 군자금을 보내 창설된 군사조직이었다. 안중근은 이 점을 강조하여 자신의 이토 저격은 대한제국 국군이 결행한 적장의 처단이므로 자신에게 적용할 법은 일본제국 형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지적하였다.

안중근의 국민의식은 1895년 무렵부터 나타나 1905년 ‘보호조약’ 강제를 계기로 적극화되어 국권 탈취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에 직접 나서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5. 광무제(고종)에게 남긴 유묵 3점의 국가 의식

안중근은 뤼순 지방법원에서 검찰, 경찰 심문이 끝날 즈음인 1909년 12월 13일부터 자서전 격인 「안응칠 역사」를 쓰기 시작하여 이듬해 1910년 3월 15일에 마쳤다.⁴³⁾ 안중근을 비롯한 의거 연루자에 대한 공판은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회에 걸쳐 열리고 2월 14일에 선고가 내려졌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안중근은 옥중에서 56점가량의 유묵을 써서 남겼다. (26점 보물 지정)

앞에서 밝혔듯이 안중근은 유묵의 원편 가장자리에 “언제, 어디서, 대한민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문구를 남겼다.(庚戌 二月 또는 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 이 표시에 따르면 유묵을 쓴 기간은 경술 곧 1910년 2월부터 3월 26일 순국할 때까지였다. 2월 상반기는 공판 중이었으므로 아마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고 17일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법원장을 면담하면서 상고(上告)를 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뒤부터 유묵을 쓰기 시

43) 시치조 기요미 문서의 한문본에는 쓰기 시작한 [始述] 날 표시가 없고, 나가사키 출현 본(한문본)에는 머리에 들어있다. 그리고 시치조 기요미 문서의 일본어 번역본에는 번역자의 서언(緒言)에 밝혀져 있다. 서술을 끝낸[畢書] 날은 판본 모두에 표시되었다.

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중근은 상고하는 순간 그것이 일본의 통치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치열한 법정 투쟁은 이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35일간 그는 하루에 1.6점의 유묵을 써서 후세에 남겼다.

안중근 유묵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는 그의 필체는 힘찬 느낌을 강하게 주는 안진경(顔眞卿) 체로 알려진다.⁴⁴⁾ 구양수체가 선비의 단아한 멋을 자랑하는 반면에 안진경체는 무인의 기개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안중근의 필체는 안진경체를 취하면서도 웅혼한 기상을 느끼게 하는 변용을 발휘하여 문구의 뜻을 더 감동적으로 느끼게 한다.

둘째는 문구(文句)의 내용이다. 붓글씨를 쓸 당시 그가 머문 감방에는 아무런 참고할 서적이 없었다. 모든 글귀는 그의 머리에서 솟아 나온 것이다. 유묵에 담긴 모든 글귀는 안중근의 학식과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유묵 앞에서 외경심을 금치 못한다.

필자는 10여 년 전 안중근의 사상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유묵의 글귀가 어떤 서적들에서 나온 것인가를 조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⁴⁵⁾ 대부분의 유묵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기고 싶은 문구를 가운데 자리에 쓰고 왼쪽 가장자리에 경술 2월(또는 3월) 뒤순 옥중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이 쓰다(大韓國人 安重根 書)라고 적었다. (사진 1 참조) 특별히 유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 가장자리 위쪽에 받는 사람을 표시하고 끝에 “대한민국인 안중근이 삼가 드린다(大韓國人 安重根 謹拜)”라고 썼다. (사진 2) 이 경우로는 현재 야스오까(安岡) 검찰관, 다케시(猛) 경시, 미조부치(溝淵) 검찰관(이상 각 1점), 소노기(園木) 통역관(2점) 등 4인에게 준 5점이다. 필자를 놀라게 한 것은 이 두 가지 형식과는 다른 제3 형식의 3점이다. 아래에 제시하듯이 3점은 오른쪽 가장자리에 받는 사람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끝에 삼가 드린다는 뜻의 “근배(謹拜)”란 단어를 썼다. 받는 사람이 감추어진 형식이다. (사진 3-1, 2, 3 참조)

3점 중 둘은 군인 정신을 담은 유명한 글귀이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爲國獻身 軍人本分)”라는 문구이다. (사진 3-1) 다른 하나는 “적을 만나

44) 이동국, 『필묵의 재구성, 글씨로 보는 인간 안중근과 그의 사상』 『安重根』,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009. 이동국은 조선 시대 이후로 안진경체는 17세기 송시열, 송준길 등 노론 계통의 글씨와 18세기 영조, 정조 시대 사육신 묘비처럼 어필이나 문인들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개화기 대한제국 시기 일제 강점기에 걸쳐 시대 서풍의 하나로 재해석되었다고 하였다. (위 『安重根』 끝 페이지 하단)

45) 이에 관해 필자는 『월간 중앙』 2012년 6월호에 「안중근의 옥중 유묵 3점의 비밀」이란 간단한 글을 발표하였다.

먼저 나아가는 것은 장수 된 자의 의무이다(臨敵先進 爲將義務)”라고 쓴 것이다.”(사진 3-2) 두 점은 안중근 유묵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삼가 드린다(謹拜)”고 한 이상 반드시 받는 사람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이 적히지 않았다. 과연 누구일까?

남은 1점이 이 의문을 풀어준다. 이 유묵은 한편의 짧은 시(詩)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사진 3-3)

천 리 밖의 임금을 걱정하니,	思君千里
바라보는 내 눈이 (허공을) 뚫으려 한다	望眼欲穿
작은 충성 표하였으니	以表寸誠
저의 충정을 잊지 마소서	幸不負情

천 리 밖에 있는 임금은 광무제 고종이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광무제에게 적장을 처단하는 작은 충성을 표하였으니 저의 충정(衷情)을 잊지 말아 달라는 작별의 말을 시로 남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앞의 두 개의 문장도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 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였고, 장수 된 자로서 적을 앞에 두고 먼저 나아가 적장을 처단했다고 국가원수인 황제에게 “삼가 드린다(謹拜)”라고 보고를 올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소회를 시로 읊어 남겼다.

「안응칠 역사」를 읽으면, 안중근이 우덕순(禹德淳), 유동하(柳東夏) 조도선(趙道先)을 만나는 경위는 감추려는 듯 매우 소략하거나 우연한 일처럼 서술하였다. 그리고 대한의군의 본부 구실을 한 대동공보사(大東共報社)에 관해서도 단 한 차례 「장부가」를 보낼 수신처로만 언급하였다. 『이토공작 만주시찰 일건(伊藤公爵滿洲視察一件)』파일에서 볼 수 있는 검찰, 경찰 각 10여 차례 신문에서 당당하게 답변한 내용을 「안응칠 역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안응칠 역사」는 밖으로 알려질 글이므로 ‘아군(我軍)의 형세’를 노출시킬 이유가 없었다.

안중근은 광무제의 지시로 결성된 대한의군의 지휘관으로서 적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몸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부과된 최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하늘나라의 ‘운재(雲齋, 구름집; 유묵 중의 하나의 문구)’로 갈 날을 기다리면서 국가원수인 광무제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3점의 유묵이 황제에게 직접 전달되리라고 믿고 쓴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국가 원수에 대한 자신의 충정은 표시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문과 공판에 관계한 4인의 일본 관리들에게 하나 또는 두 점의 유묵을 써 준 것은 이 3점의 수신인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위 3점에

만 “근배(謹拜)”라고 썼다면 쉽게 의심을 사서 황제의 신변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일부러 사례를 더 만들어 감추려 한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를 밝힐 때까지 그 의도는 주효한 셈이다.

광무제는 안중근의 신병이 일본 법정으로 넘어간 뒤 그가 죽음에 이를 것을 걱정하였다.⁴⁶⁾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앞두고 10월 20일 상하이의 독일계 덕화은행(德華銀行)에 예치해 둔 15만 엔을 찾기 위해 미국인 고문관 호머 헐버트에게 위임장을 써 주었다. 하얼빈 의거가 성공한 뒤, 11월 초에 헐버트는 실제로 다롄을 거쳐 상하이로 갔다. 그러나 1년여 전에 통감부가 궁내대신(宮內大臣) 이윤용(李允用-이완용의 형제) 이름으로 이미 돈을 찾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황제가 이 거액의 돈을 찾아 대한의군에 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제는 대한의군 참모부가 안중근의 신병을 러시아 법정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제보호인단을 구성하고자 비밀리에 ‘안중근 구제회(救濟會)’를 발족시켰을 때 자금을 직접 보내지 못하고 모금을 독려하는 2인의 밀사를 그곳으로 보냈다. 옥중의 안중근이 황제를 걱정하고 있을 때 서울의 황제도 안중근의 신병을 염려하고 있었다.

6. 맺음말

필자는 2001년에 정조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민국(民國)」이란 용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⁴⁷⁾ 대한민국의 ‘민국’과 같은 용어가 18세기 후반 정조 시대에 그것도 국왕이 스스로 창안하여 쓰기 시작한 사실을 주목하였다. 한 시대 앞서 영조는 대민(大民) 곧 사대부들의 정쟁으로 삶을 희생당하는 소민(小民)을 보호하는 것이 군주의 임무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탕평 정책을 내세웠다. 정조는 이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를 ‘민’ 곧 소민과 ‘국’ 곧 임금의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대민은 이미 왕정에 참여해온 존재이므로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도 나라의 주인이란 의식을 강조한 조어였다. 이 조어를 내놓은 뒤, 정조는 자신의 국정을 ‘민국사(民國事)’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이 특이한 조어는 정조 사후 민란시대에도 없어지지 않았다. 민란의 원인인 삼정(三政) 문란을 개혁하는 논의에서도 그것을 민국의 중대사라고 표현하였다. 고종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용례가 급증하는 현상도

46) 이하의 서술은 이태진,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고종황제」, 2010, 참조.

47) 이태진, 「조선시대 민본의식의 변천과 18세기 ‘민국’ 이념의 대두」 『국가이념과 대외인식-17~19세기』, 고려대학교 亞研 출판부, 2002. : 「朝鮮時代 民本意識의變遷と18世紀‘民國’理念の擡頭」, 『國家理念と對外認識-17~19世紀』, 慶應大學 出版部, 2001.

『실록』을 통해 확인되었다.⁴⁸⁾ 이 흐름은 곧 조선왕조의 유교 왕정이 근대적 지향성을 보이는 흐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흐름이 과연 근대국가의 토대가 될 정도의 것인가는 다음 연구 과제로 남았다. 필자가 2019년에 발표한 「국민 탄생의 역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필자는 동학 농민군의 봉기, 이를 구실로 일어난 청일전쟁 중에 군주 고종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정치를 모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절대다수인 일반 평민(소민)을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특정한 조서(詔書)와 칙유(勅諭)를 국한문 혼용체로 내린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국민 탄생의 역사-3·1 독립 만세운동의 배경-」이란 제목으로 2019년 3·1 독립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 논문집에 발표하였다. 그 줄거리를 이 논문의 제1차적인 근거로 삼아 도입부에 소개하였다.

국한문 혼용체의 조서류는 1895년 1월 7일 (음력 1894.12.12) 「홍범 14조」 종묘 서고(誓告)에 후속하여 나오기 시작하였다. 「홍범 14조」를 알리는 「내무아문령」을 필두로 앞으로 인재 등용에서는 문벌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에 따라 쓴다는 조서 등 여럿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1895년 2월 26일(양력)에 나온 「교육 조령」은 신식 교육을 통한 국민 창출의식이 역력한 내용이었다. 오직 신민(臣民)이 나라의 분개를 풀어주고, 오직 신민이 나라의 모욕을 막고, 신민이 나라의 정치제도를 닦아나갈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이런 취지로 당대 미국 중등교육의 근간인 체양·덕양·지양의 3양(養) 교육을 조선의 새로운 교육 강령으로 채택한다고 널리 알렸다. 체·덕·지의 순서를 덕을 앞세워 덕·체·지로 조정한 것은 유교 왕정의 전통성을 보여준다. 고종이 ‘임금 스승[君師]’의 위치에서 이 강령을 내린다고 한 것은 선대왕 정조가 ‘소민’의 윤리 강령으로 「오륜행실도」 언해본을 반포할 때 쓰던 형식이다. 역대 왕정의 소민 보호 의식이 현대화하는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새로운 역사는 1896년 4월 한글 전용의 『독립신문』 창간으로 이어지고, 1907년 2월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채보상 운동에서 나라가 부당하게 진 빚을 갚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는 의식으로 발전하기까지 하였다.

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 탄생의 역사」를 집필하던 중에 안중근의 유묵이 떠올랐다. 그의 유묵들은 하나같이 가운데 자리에 뜻하는 문구를 쓰고, 왼쪽 가장자리에 “경술년

48) 이태진, 「高宗時代의 ‘民國’ 이념의 전개 - 유교 왕정의 근대적 ‘共和’ 지향-」 『진단학보』 제124, 2015.

(1910) 2월 또는 3월에 뤼순(旅順) 옥중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표시 글을 붙였다. 우리 역사에 남은 어떤 서예 작품에도 국적을 표시한 예는 안중근 외에 찾아 볼 수 없다. 필자는 이것이 1895년부터 창출된 새로운 국민의식이 그의 남다른 애국심과 어우러져 나온 것이라고 믿었다. 이 가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국민 탄생의 역사와 안중근」을 쓰게 되었다.

본론에서 보았듯이 「안응칠 역사」 속의 국민의식은 「국민 탄생의 역사」와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그는 새로운 국민 탄생 역사의 최우등생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정도로 그의 국민 의식은 투철하였다. 신식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다가 1907년 광무제 강제 퇴위에 부닥쳐 연해주로 가서 광무제가 보낸 군자금으로 창설된 대한의군의 지휘관이 되었다. 대한의군은 곧 국군으로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처단 ‘특파대’ 구성 때 제일 먼저 자원하여 특파대대장으로서 하얼빈 대첩의 혁혁한 공훈을 역사에 남겼다. 그의 자주독립, 민권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굳은 의지는 법정 투쟁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사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상고(上告)를 거부하고 50여 점의 유묵에 당당한 ‘대한국인’으로서의 국가관, 세계관, 그리고 종교관을 남겼다.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은 3일 뒤 1910년 2월 17일 히라이시 우지도 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논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전 황제의 총명함을 이기지 못해 (그를) 폐위하고 그보다 좀 못한 현 황제를 즉위시켰다”(1910년 2월 17일 자 「청취서」)라고 말하였다. 영웅 안중근에게 광무제 고종은 근대의 역사를 바로 이끈 군주였지 오욕의 군주는 결코 아니었다. 고종에 대한 ‘무능한 군주’란 혹평은 ‘테러리스트 안중근’이란 악의적 선전과 함께 일본제국이 조작한 역사 왜곡의 산물일 따름이다.

〈표 부록〉

〈표 1〉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공사 ‘개혁안’ 20조와 「홍범14 조」비교

이노우에 공사 20개 조 (1894.11.20.)	홍범 14조 (1895.1.7.) (양력)
	제1. 청국 의존 생각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 세운다.
1. 정권은 한곳에서 나오게 함.	제3-2.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의 정치 간여는 용납하지 않는다.
2. 대군주의 정무 직접 결재권	제3-1. 국왕은 정전(正殿)에서 정사를 보고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한다.
3. 왕실 사무는 나라 정사와 분리	제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4. 왕실 조직 규정	제2. 왕실 전범(王室典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 정하기	제5.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6. 조세는 탁지아문으로 통일, 제정된 조세 부과 비율 준수	제6. 세금부과(賦稅)는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7. 왕실, 아문의 비용 미리 정함	제8.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 절약,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 왕실과 각 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 예산 세워 재정의 기초 확립
8. 군사 정무를 정하기	제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9. 허식, 사치 폐단 교정	없음
10. 형률 제정	제13.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1. 경찰권 통일	없음
12. 관리 복무 규율 제정, 엄수	없음
13. 지방관 권한 제한, 중앙 정부 장악 강화	제10.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14. 관리 등용 파면 규정, 임의적 인사 배제	없음
15. 권세 다툼, 시기 와 이간 폐단 척결, 정치적 보복 관념 불식	없음
16. 工務衙門은 아직 불필요	없음
17. 軍國機務所 권한 개정	없음
18. 顧問官 각 아문 초빙	없음
19. 유학생 일본 파견	제11.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20. 國是를 일정하게 함	없음
없음	제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표 2〉 ‘보호국’ 강제 시기의 각 사회단체 잡지 일람

잡지명	창간 시기	발간 단체	단체 역대 회장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6. 11. 30)	(獨立協會)	
大韓自強會月報	1906. 7. 31	大韓自強會	尹致昊
太極學報	1906. 8. 24	太極學會	張膺震, 金志侃
西友	1906. 12. 1	西友學會	鄭雲復
大韓留學生會學報	1907. 3. 3	大韓留學生會	尙灝, 崔錫夏, 崔麟, 朴勝彬
大東學會月報	1908. 2. 25	大東學會	申箕善
大韓學會月報	1908. 2. 25	大韓學會	崔麟, 李恩雨
嶠南教育會雜誌	1908. 4. 25	嶠南教育會	李夏榮
大韓協會會報	1908. 4. 25	大韓協會	南宮憶, 金嘉鎭
湖南學報	1908. 6. 25	湖南學會	高鼎柱
西北學會月報	1908. 6.	西北學會	李東輝(공식창립까지 임시회장) 鄭雲復, 吳相奎
畿湖興學會月報	1908. 8	畿湖興學會	李容植, 尹雄烈, 金允植, 洪弼周
大韓興學報	1909. 3. 20	大韓興學會	蔡基斗, 文尙宇, 李昌煥, 崔昌朝

〈표 3〉 ‘보호국’ 강제 시기 잡지의 ‘국민’ ‘국가’ 기사 빈도

연도	기사 수효		필자
	‘국민’	‘국가’	
1897	1	0	〈국민〉 무명
1906	3	3	〈국민〉 尹致昊 張膺震 蔡奎丙 〈국가〉 崔錫夏 海外遊客(2)
1907	9	11	〈국민〉 張弘植 尹孝定(2) 朴聖欽(3) 李亨雨 李東初 무명 〈국가〉 張志淵(2) 尹孝定 李圭正 崔南善 金成喜(3) 沈宜性 朴殷植 金鎮初
1908	11	21	〈국민〉 朴容喜 金成喜(3) 趙東肅 金甲淳 山雲生 李相稷 卞惠淵 尹榮鎮 呂炳鉉 〈국가〉 耕世生(2) 張道斌 洪聖淵 李漢卿 金翼塔 金陵居士 李沂 金光濟 大韓子 玄采(3) 무명(8)
1909	9	13	〈국민〉 金成喜 洪弼周 趙琬九 朴海遠 金淇驩 盧義瑞 鄭國采 李豐載 春夢子 〈국가〉 鮮于「金+筍」(2) 溯考生 玄采(2) 盧義瑞 朴海遠 李鍾滿 法律讀書人 무명(4)
1910	1	0	〈국민〉 韓興教
계	34	48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 공문 - 내무아문령〉

1. 內務衙門令: “去十二月十二日에 我聖上陛下께서 我國家의 獨立自主하는 基業으로 宗廟에 誓告하시며 其明日에 太社에 詣하 亦然하시고 因하야 臣民에게 布告하시는 綸音을 降하시니 惟我大朝鮮國大君主陛下의 臣民되는 者가 聖意를 尊奉함이 可한지라. 大抵我大朝鮮國이 本來堂堂한 自主獨立國이러니 中間에 淸國의 干涉을 受하야 國體를 稍損하고 國權을 漸傷하는 故로 我聖上陛下께서 宇內形勢를 顧察하시고 廓然히 乾斷을 揮하: 中興하시는 功業으로 自主獨立하는 洪基를 確建하야 淸國에 附依하는 舊習을 割斷하심이니 國家의 慶福과 臣民의 榮光이 莫大한지라. 國是가 是를 由하야 亦一定하니 異論이 宜無할터이언 不良無賴한 徒黨이 國家의 大義를 忘却하고 尙且淸國을 思慕하야 無根한 訛言을 造하야 人心을 煽惑하고 國是를 撓動하니 此는 我聖上陛下의 不忠敬한 臣民이라. 如此한 輩類는 現하는 處로 捉하야 不道國賊으로 罰할지니 惟我大朝鮮國大小民人은 我聖上陛下의 洪功을 欽頌하며 深意를 克體하야 自主獨立하는 大事業을 共守하고 訛言煽動하는 國賊이 有하거든 共攻하기를 跂望하노라.” (『고종실록』권 32, 고종 32년 1월 5일-양력 1월 30일-)

〈「안응칠 역사」 판본 비교 자료 사진〉

0. 나가사키본

安應七 歷史
一千八百七十九年^即七月十六日、大韓國、黃海道、海州府、首揚山下生、一男子、姓、安、名、重根、字、應七、性、賢、近、於、姓、急、故、名、曰、重根、^{性、賢、近、於、姓、急、故、名、曰、重根、}其祖、父、名、仁壽、性、賢、仁、厚、家、^{有、腹、有、七、子、其、字、應、七、}產、豐、富、以、慈、善、家、著、名、於、道、內、曾、前、叙、任、于、鎮、海、^{名、鎮、海、縣、監、一、部、}生、六、男、三、女、弟、一、名、曰、泰、鎮、^{二、泰、鎮、三、泰、鎮、}父、四、泰、健、五、泰、敏、六、泰、純、合、六、兄、弟、皆、文、翰、有、餘、其、中、特、父、才、慧、英、俊、八、九、歲、

1. 전기 및 논설 표지



2. 안응칠 역사

安應七歷史

一千八百七十九年己卯七月十六日大韓國黃海道
 海州府首陽山下生一男子姓安名重根字應七
 其父名仁壽性仁厚家
 產豐富以慈善家著名於道內曾前叙任千鎮海
 縣監(新)生大男三女一一名曰泰鎮二泰鉉三泰勲
 其中私父才慧英俊八九歲通達四書三經十三四
 歲科文大體卒業讀習通鑑冊時教師周卷指示一
 字固曰自此字十張之下底字何文字能知否暗思
 答曰能知彼少大字矣散見則果若其言天字教師
 奇異之更問曰此冊翻還誰上能知否若曰能知如

3. 안중근전

安重根傳

一千九百零五年十二月自上海還到于鎮南浦探聞
 家信則這間家眷奔發清溪洞到於鎮南浦而但私
 父中路病勢尤重則世長逝故家眷更還及私父靈
 柩葬于清溪洞云聽罷痛哭氣絕數次翌日允復還
 到清溪洞設喪守者幾日後禮畢與家眷過其冬節
 此時心盟新酒曰當大韓樹立之日開飲為限明年
 春三月申家眷離清溪洞移居鎮南浦建寧洋屋一
 座安業後傾家產設立學校二處一曰三興學校一
 曰敦義學校也擔任校務教育青年英俊矣其翌年
 春何許一人來訪察其氣象則金進士也客曰金東吳君又親
 風通其姓名則金進士也客曰金東吳君又親

4. 일역본

安應七歷史(譯文)

一千八百七十九年己卯七月十六日大
 韓國黃海道海州府首陽山下生一男子
 姓安名重根字應七性質輕急
 生ハ姓ハ安名ハ重根字應七性質輕急
 近ノ故ニ名ケテ重根ト曰フ胸腹七分
 ノ黒子有リ故ニ應七ト字ス其祖父名ハ
 仁壽性質仁厚ニ應七ト字ス其祖父名ハ
 以テ道内ニ名アリ曾テ鎮海縣監
 叙仕ス六男三女ヲ生ム弟アリ
 一テ泰鎮ニテ泰鉉三テ泰勲(私父)四
 一テ泰健五テ泰敏六テ泰純ト云フ皆
 文翰餘アリ其中私父才慧英俊八九

〈광무제 고종에게 남긴 안중근의 하직 인사 유묵 추적 자료〉

사진 1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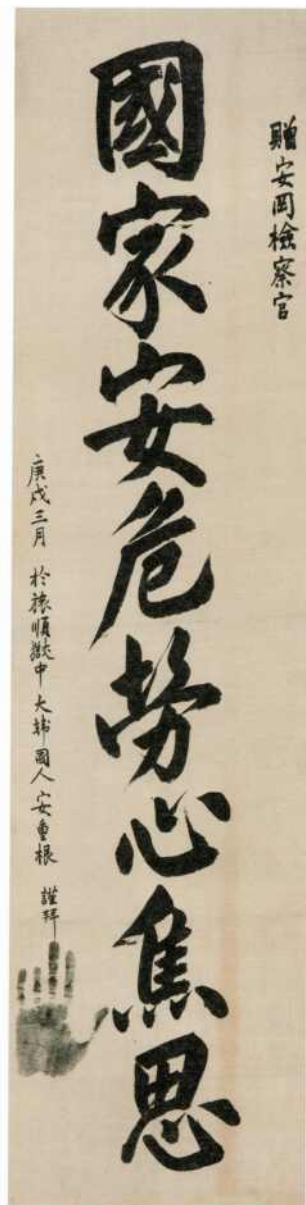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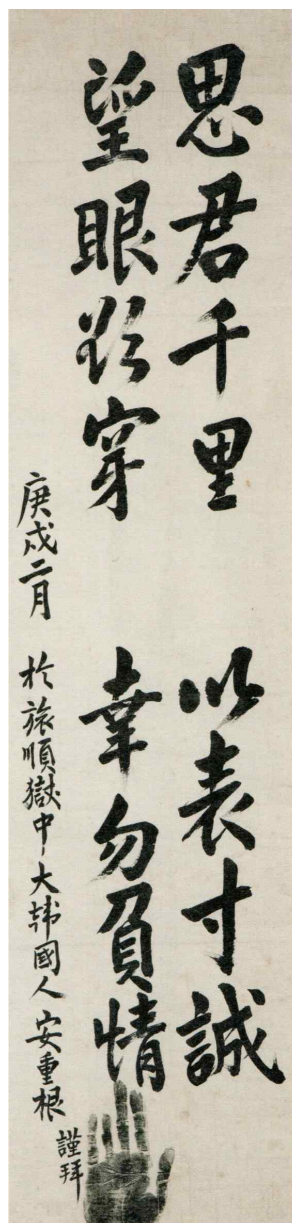
사진 3-1



사진 3-2



사진 3-3



<참고문헌>

『고종실록』

『宮中秘書 全 V.1』 이왕직실록편찬회, 1927.

윤병석 편역, 『안중근문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중국신문 안중근의거 기사집』, 201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본신문 안중근의거 기사집 I 門司新聞』, 2011

국립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역사 편찬위원회,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 1895~1946』, 서울
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한국역사연구원편, 『안중근 하얼빈 의거 일본 정부 배후조사 자료집- 일본 외무성 소장 『伊藤
公爵滿洲視察 一件』 11책』, 石橋역사연구자료 시리즈, 2021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 2008.

김승일 역, 『조선왕비살해와 일본인』, 태학사, 2011.

이태진,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조약 강제와 저항의 역사-』 지식산업사, 2016.

최서면, 「안중근 自傳攷-長崎本の 진위에 대하여-」, 『나라사랑』 34호, 1979

신용하, 「안중근의 사상과 국권회복운동」, 『한국사학』 2, 1980

방선주, 「서광범과 이범진」,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이태진, 「안중근-불의·불법을 쏜 의병장」, 『한국사 시민강좌』 제30집, 2002

이태진, 「조선시대 민본의식의 변천과 18세기 '民國' 이념의 대두」 『국가이념과 대외인식-17~19
세기』, 고려대학교 亞研 출판부, 2002.

이태진, 「안중근 '의사', 과연 바른 호칭인가?」 『대한민국학술원 통신』 제185호, 2008. 12.

이동국, 「필묵의 재구성, 글씨로 보는 인간 안중근과 그의 사상」 『安重根』,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관, 2009.

이태진,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고종황제」, 『영원히 떠오르는 불꽃-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지식 산업사, 2010.

이태진, 「高宗時代의 '民國' 이념의 전개 - 유교 왕정의 근대적 '共和' 지향-」 『진단학보』 제124,
2015.

이태진, 「대한제국의 산업근대화와 중립국 승인외교 -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 청경예식 기획
의 배경」, 『대한제국,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다』, 국립고궁박물관, 2018.

이태진, 「국민탄생의 역사-3·1독립만세운동의 배경」, 이태진·사사가와 노리카스 공편, 『3·1독립만
세운동과 식민지배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일 공동연구, 지식산업사, 2019.

菊池謙讓, 『近代朝鮮史』, 鷗鳴社, 1939.

金正明, 『伊藤博文 暗殺記録 -その思想と行動-』 明治百年史叢書, 原書房, 1972.

市川正明 編 『安重根と日韓關係史』, 原書房, 1979.

森山茂徳, 『日韓併合』, 吉川弘文館, 1992.

金文子,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 高文研, 2009.

崔書勉, 「安重根自傳」 『外交時報』 1074号, 外交時報社, 1970. 5.

金庚姬, 「ハーグ `密使` と `國際紛争平和的處理條約`」, 『明治大學文學研究論集』 十二号, 2000.

李泰鎮, 「朝鮮時代 民本意識の變遷と18世紀 `民國` 理念の擡頭」, 『國家理念と對外認識-17~19世紀』, 慶應大學 出版部, 2001.

金文子, 「不可視された大韓帝國」 『歴史學研究』 No. 946, 2016.7.

〈Abstract〉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Ahn Jung-geun

Yi, Tae Jin*

In all the calligraphic works Ahn Jung-geun produced in prison, he clearly recorded the time, place, and author of his calligraphic works. In other words, he added to all his calligraphic works the sentence "In February (or March) of the *gyeongja* year (1910), Ahn Jung-geun, a national of Great Korea, wrote in the Lushun prison." Although adding such a sentence is unparalleled in the history of Korean calligraphy, no study has been devoted to examining this fact. The mention of "a national of Great Korea (*Daehanguk in*)" has merely been regarded as an indication of his fervent patriotism.

Ahn Jung-geun was born in 1879. In 1894-95, when he was 15 and 16 years of age, Joseon underwent the First Sino-Japanese War on its own soil. In order to overcome this tragedy, the making of a modern nation was set in motion. The Education Decree, issued on February 2, 1895, put forward the cultivation of three areas-cultivation of virtue (*deokyang*), cultivation of physical body (*cheyang*), and cultivation of intellect (*jiyang*)-as the main principle of education. In the Decree, the Korean monarch stated that only the subjects (*sinmin*) could resist the enemy of the state, prevent humiliation to the state, and carry on the political system of the state and that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subjects was critical to strengthening the country. All the policy measures aimed at creating a modern nation were written in a script that used both Korean letters and Chinese characters. *Tongnip Sinmun*, a Korean-only newspaper, was founded in 1896 with government support, and this was also in line with this direction.

Ahn Jung-geun's autobiography, *History of Ahn Eung-chil*, also demonstrates

the trend of this era. He possessed a strong sense of identity and duty as a Korean national, to the extent that he may be regarded as a supreme example in the making of a modern nation pursued by the monarch Gojong. He engaged in the education movement in Jinnampo and was in charge of the Pyongyang area during the 1907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 nationwide movement driven by an intense sense of national duty. It was this strong sense of national identity that enabled him to enlist in the Vladivostok-based Korean Righteous Army and carry out the execution of It? Hirobumi, the chief culprit in Japan's usurpation of Korea's national sovereignty. Of fifty-odd calligraphic works he produced in prison, Ahn Jung-geun also left three calligraphic writings as farewell notes to Gwangmu Emperor, the head of the Korean Empire.

Keywords: educational principle of cultivating three areas: *deokyang* (德養), *cheyang* (體養), and *jiyang* (智養), Independent Reform of 1895 (*eulmi*), Ahn Jung-geun's education movement, *Ahn Eung-chil Yeoksa* (安應七 歷史) Nagasaki (長崎) version and Shichijo Kiyomi (七條清美) version, Report of Tagawa Kozo (田川孝三)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